

17世紀國語의 音韻史의 考察

李 崇 寧*

序 言

I. 文獻의 表記法 傾向과 資料의 鑑定

II. 17世紀國語의 音韻史의 構想

結 語

序 言

國語史의 研究에서 資料面에서 본다면, 中世國語의 後期語라고 할 15世紀國語에서부터의 研究가 正確性을 期할 수 있다는 學界의 通念은 妥當한 생각이다. 課題의 重要性은 오늘날 그 以前의 研究에 있다고 보지만, 資料의 不備에서 學界의 精力이 解放後 15世紀語의 研究에 浪費된 것도 不得已하였다고 하겠는데, 그렇다고 16, 17世紀 또는 그 以後의 國語의 研究가 意外로 等閑視된 것도 事實이다. 그 理由는 16世紀 以後의 資料가 15世紀의 資料보다 採集되기 어려울만치, 文獻의 開拓이 不振하였다는 데에도 있지만, 이제는 16—18世紀國語를 밝혀, 李朝語史만이 라도 均衡있게 整備할 時期에 들어선 것이라고 하겠다.

여기 本稿는 17, 18世紀의 研究에서 우선 17世紀의 音韻史만을 考察하려 한다. 이 時期의 形態論의 考察은 참으로 巨大한 것이 되기로 制約된 紙面으로는 音韻史의 考察만이 不得已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는 中世語에서 近代語로서 推移가 音韻論에서 어찌 나타나는가를 究明함을 主眼點으로 삼는 바이다.

17世紀의 資料는 豊富한 것이며, 文獻도 特히 小冊子型의 貴重한 文獻이 적지 않은 터이나, 一般學者에게 閱覽의 機會가 制約된 特殊文庫의 保藏品임이 隘路라고 하겠다. 本稿에서는 資料의 採取對象의 文獻을 다음에 例示하려는데, 이것을 主要對象의 文獻으로 삼는다. 그런데, 여기서 禪家龜鑑을 對象文獻에 넣기로 하는데, 周知의 事實과도 같이 禪家龜鑑은 本文의 西山大師의 編이고, 跋文이 四溟大師(惟政)의 것으로 萬曆 7年己卯(1579)에 該當하나 그 諺解의 時期와 譯者는 不明하다. 異本에서 一本에 金華道人의 諺解라는 記錄이 있지만, 金華道人의 傳記가 不明하니 時期는 制定할 수는 없다. 本稿에서는 「萬曆 38年 庚戌三月日全羅道(松廣寺)開刊(1610)의 板本을 對象으로 하기로 하는데, 이 松廣寺板은 그 절 이름이 削刻되어 있음이 問題지만, 그

*서울大學校 大學院長, 國語學(文博)

렇다고 이 板本の 諺解가 1610年の 諺解인지도 不明하다. 그러나 大體로 16世紀末 17世紀初의 諺解內容으로 着做하고 採擇하기로 한다. 이 文獻의 特徵은 16世紀에서 17世紀로 推移하고 言語狀態를 表示한 것으로 보아 價値있는 文獻으로 認定하는 바이다.

禪家龜鑑	1610 以前
諺解痘瘡集要・諺解胎產集要	1608
東醫實鑑	1613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重刊杜詩諺解・家禮諺解	1632
火砲式諺解	1635
鍼灸經驗方	1644
辟瘟新方	1653
警民編諺解	1656
老乞大諺解	1670
捷解新語	1676
朴通事諺解	1677
譯語類解	1690]
新傳取焰煮硝方諺解(重刊)	1698

여기서 文獻의 略號는 「禪家・痘瘡・胎產・東醫・東新・杜・家禮・火砲・鍼灸・辟瘟・警民・老・捷・朴・煮硝・譯語」와 같이 例示에서 表示하기로 한다.

本稿에서 가장 神經을 쓰게 함은 이들 文獻에 나타난 資料가 筆者들의 言語的 個性, 表記法의 混亂, 더구나 保守的인 表記法의 性格에서 그대로 當時의 言語를 表出한 것이라고 믿기 어려움이 一般이다. 保守的인 表記法에서 露出되는 現實語의 索出이란 本稿의 執筆에서 가장 注力한 터이며, 表記뒤에 隱匿된 言語事實의 抽出이 音韻史의 考察에서 緊要한 態度가 될 것이다. 本稿는 이에 留意하여 文獻의 表記法의 性格을 우선 究明하기로 한다.

그리고, 16世紀와 18世紀 또는 現代語와의 比較에서 그 發達의 方向을 模索하며, 이러한 發達 過程에서 17世紀國語의 樣相을 總覽함을 本稿의 大體의 計劃으로 삼는 바이다.

I. 文獻의 表記法 傾向과 資料의 鑑定

本 研究에 있어서 各 文獻에 記載된 資料는 그 表記法이 混亂되어 있는데, 이 資料는 文獻의 記載된 額面대로 採擇될 수는 없어, 여기 資料의 sampling이 自動的으로 앞서야 한다고 하겠다. 그런데, 17世紀 初期文獻의 資料에서 그 表記法의 混亂은 다음과 같은 要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判定된다.

1. 16世紀初의 朴通事初刊本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난 表記法의 混亂이 16世紀 後半에 와

서는 점차 그 混亂의 度를 더한 것이 17世紀에 들어서도 反省됨이 없이 그대로 繼承된 것이라고 하겠다. 要는 表記法의 規範이 考慮되지 않고 各自 恣意的인 表記가 傳統인양 19世紀까지 繼承되는데, 17世紀 前半에서는 그 混亂된 表記에서도 몇 가지 混亂의 傾向을 추려낼 수 있다. 그러나 17世紀 後半에 들어서는, 그래도 表記法傾向이 점차 反省되고 固定되려는 方向을 보인다. 諺解痘瘡集要·諺解胎產集安·東國新續三綱行實圖 등에서는 그 表混法混亂이 莫甚하더니 老乞大·朴通事 兩諺解 등에 이르러서는 그 混亂이 多少 安定되고 表記法 傾向이 새로 形成된 것 같으나, 그 以上으로 表記法의 發展을 뚜렷이 指摘할 程度는 못된다.

2. 이러한 表記法의 混亂에서도 두 가지 相反되는 表記法의 相克이 着取된다. 그 하나는 表記法의 保守性에 의한 한 時代 以前의 言語를 表出하는 傾向과 當時의 現實語의 表記가 相衡되고 있어, 때로 新舊 兩形態의 言語相이 나타나고, 또한 言語發達에서 新語의 分岐, 또는 雙形語(doublet)가 表記法의 混亂 속에서 抽出할 수 있다.

머리 갓고<朴 上50>——머리 삭고<全 51>

스매<袖 家禮一 38>——소매<家禮圖 2>

도죽<賊 痘瘡上 17>——도적<東新, 坤, 烈 四, 75>

흙<土, 東新, 乾, 孝二, 64>——흙<全 三 5>

손가락<指 東新 乾孝三 49, 52>——손마락<東新 乾孝三 67, 74>

以上은 新舊兩形의 並存같이 느껴지나 자세히 考察하면, 音韻變化에서 일어난 交替의 過程을 暗示하는 것이다.

3. 各 文獻에서 執筆者의 言語記述의 反省力이 없고, 表記法에 이렇다고 할 規範의인 考慮가 없기로 表記法의 混亂이 일어나는 例가 많은데, 이것이 表記法混亂의 最大 要因이 될 것이다. 同化作用을 發音대로 表記한다든지,

뜯인논<東新 坤忠一 2> 존논나라<數, 胎產 9> 증인논니<有症 胎產 12>

non-explosive의 「ㅅㅈㅈ」발침을 「ㄷ」으로 混用한다든지,

늘빛츠로<顔色, 東新 坤 烈 四 73> 설넉키<西, 全 忠 13> 꾸질고<叱, 全 乾 孝 二 69> 존고<遵 全 74> 일더니<有, 全, 78>

의 例가 그것이다. 特히 語中에서 [r] [l]音의 意識이 不明하여

어미놀<母 東新 坤 烈 四 73> 설혼날물<三十日 全 74> 죽거물<죽거늘 全二 13> 고구녀<高句麗 全 坤 忠一 4>

위와 같이 混亂이 나타난다. 胎產集要의 「둘이 브너<延月>」가 「둘이 물어<退>」의 表記라고 보기는 그리 簡單한 것도 아니다.

以上과 같이 보면, 17世紀語의 의논리없는 實態를 再構하기는 決코 쉬운 일은 아니다. 따라서 文獻에 나타난 語彙의 新奇怪한 表記를 그것이 音韻變化로 본다면 큰 危險을 犯함이 될 것이요,

그 反對로 音韻變化의 端縮가 될 資料를 誤記로 보아서도 아니된다. 그러므로 各 文獻에서 執筆 者 또는 著者의 表記法에 대하여는 文獻別로 考察하여, 時代의 表記法 傾向과 執筆 者의 文體의 特徵인가를 判定하고서 言語史的 考察로 들어서야 할 것을 主張하는 바이다. 그러나, 全 文獻을 이러한 眼目으로 檢討할 餘裕가 없기로 表記法混亂이 甚은 17世紀 初期文獻의 表記法을 集中的으로 考察하고, 그 뒤 比較的 固定화된 다음 段階의 文獻의 例를 倂呑倂呑 考察하려 한다.

1. 禪家龜鑑

이 文獻은 比較的 表記法의 規範을 지키려고 努力한 書인데, 그래도 16世紀末에서 17世紀初에 걸친 一般의인 表記法의 特徵이 나타난다.

1. 格助詞나 活用 的 表記에서 語幹末音이 子音인 경우에 表記가 混亂되고 있다.

(a) 面目그로<2> 紙墨게<2> 黑白글<3> 디키여<3> 석석기<17>

(d) 빛속울<60> 期約이<3> 世間의<4> 佛前에<55> 慧日이<3> 四面에<50>

(c) 구루메<3> 묵스문<9> 이베<口 4> 비츄뎨<6>

여기서 (가)項의 表記가 이 時代의 一般의 傾向인데, 이것은 語幹末音이 「ㄴ, ㄹ」인 경우에 도 같은 傾向을 나타낸다.

(d) 一物문<3> 一說문<4> 所說문<4>

(e) 世尊문<4> 禪문<4> 阿難문<4> 눈노로<目 6> 잔문<齒에 35>

이렇게 보면 /r/ /l/의 識別이 困難했다고 보며, /-nn-/도 /r/이나 /l/의 경우와 같이 /-n-/과 /-nn-/의 識別이 不明確했던 것이다. 그럴만한 發音上의 習慣이 있었을 可能性도 보인다. 특히 「오물사 (今日이야 33)」에서 /-n-/과 /-r-/의 差異가 뚜렷하지 않은 듯하여 이러한 誤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2. 번갯빛치<63> 갑꼭니라<報 52> 김피 信호야<25> 김핀<58> 섭피니<薪 3>

여기서 /-스-/ , /-니프-/으로 語幹末音의 aspirate의 表記에 지나친 考慮라든지

얹물<頰 5> 蟲결 될우미로다<2>

에서 /-로-/이 /-로로-/으로, /-르-/이 /-르르-/로 表記된도 語幹末音에의 지나친 考慮가 이같은 誤記를 犯한 것이러니 한다.

3. 15世紀의 表記方式인 「홀문(一日)」과 「꼴울(粉畝)」이 그대로 維持된 것인데, 앞의 /-르-/과 /-르르-/ 間의 態度에서 보아, 保守的인 慣習의 所致로 보인다.

갓잘애<革囊에 55> 세뭇리<三要 3, 14>

물라<不知 7> 물애<沙 35> 벌게<虫 60> 열이늑니<開 36>

이들이 實際의 發音에 얼마나 寫實한 것인지는 簡單히 따지기 어려우나, 保守의인 表記法이기도 하다. 特히,

그렇시 러비 드르물 즐기는 사록문<59>

이 「러비」는 「너비」의 誤記지만, 語頭에서 /r/ 또는 /l/과 /n/의 識別이 뚜렷하지 않은 時代임을 말함이다.

4. 動詞의 活用에서 :

복느니<明 39> 벗느니<脫 44> 何느다<何 50> 짓노라<憑 2> 석느니<腐 13>……

와 같이 正規의 表記가 大體이기는 하나, 同化作用대로의 表記例도 間間히 나타난다.

일흠진논다 ㅎ시니<1> 인느니<1> 안잔느니<坐 59>

이러한 例는 17世紀初의 文獻에 共通된 表記法의 傾向이어서 禪家龜鑑에 限한 것도 아니다.

5. /ㄷ/받침의 使用 :

여기서는 比較的 /ㄷ/받침이 正當히 쓰였다.

곤도다<如 2> 곤고<如35> 묻ㅎ면<36> 묻ㅎ시고<1> 묻ㅎ들<6>

날느니라<願11> 뜯<意47> 곧<即 8, 16, 28> 걸디<捲 3>

6. 語頭의 /ㄷ/系 子音群은 잘 維持되고 있다.

쁘디<2> 떠러샤<拂12> 뜨르시며<掃 3> 뜨며<用 3> 띄우몰用 49> 밭<包53>

뜯<7, 74> 뿔<爆15> 뿔ㅎ면<爆15>……

이 /ㅌ/, /ㄷ/系 語頭子音群의 表記는 이 17世紀 文獻에서 어디에도 淸사리 發見된다. 이것은 17世紀 文獻에는 거의 빠짐없이 나타난다.

7. △音이 一部語彙에 限하여 나타난다.

막숨<3, 14, 40> 막스문<9, 30> 막스물<23, 40, 43>

ㅎ스와도<1> ㅎ스왕다<1> ㅎ스은디<2>……

그러나 이것은 表記法의 問題이지 現實言語에 △音이 存在한 것은 아니다.

以上과 같은 諸般事實은 17世紀의 어느 文獻에도 共通된 傾向이라고 하겠으며, 오직 그 濃度가 다를 뿐이다. 勿論 여기서 一部 語彙에 △音의 使用은 곧 一掃되지만 그외의 諸般事實은 17世紀 前半의 文獻에서는 거의 비슷하므로 本稿가 다룰 諸 文獻을 여기 모조리 檢討할 必要는 없는 터이다. 따라서 몇 種의 文獻만을 추려 그 傾向의 濃度만 밝히려 한다.

2. 諺解痘瘡集要의 表記法

이 文獻은 當時의 混亂傾向에서 보아 比較的 表記法에 反省이 짙은 便이라고 보나, 그래도 時代的 混亂傾向에서 例外일 수는 없었다고 하겠다.

1. 格助詞의 表記에서 語幹末音이 子音인 경우에 表記의 混亂이 일어난다.

형역기<主格 上 17>~도죽형역이니<賤痘 全 17 18>

뽕나모속개<中·上 28>

아히몸매 보록고<소12>~은몸뭇<全身 全 18>~몸애 꾸므되<소22>~몸이 곧세고<身直 19>

방문논<方文 全 7>

즈초과 홍화과 선각을<紫草紅花蟬殼 上 17> 귀뇨 츠니과 눈 저본저본하니과<소 11>

이러한 表記法은 言語事實의 充實한 記述이라고는 看做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當時의 餘他의 文獻보다는 이러한 混亂은 이 文獻에서는 顯격히 少量의 것임을 알게 된다.

2. 語幹末音의 「ㄷ」의 濫用을 指摘할 수 있다. 特히 non-explosion의 發音에서 온 錯覺에서인 가 여겨진다.

콧물<鼻汁 上 3> 콧글 츠며<소 11> 폐장은 콧물이오<소 2> 권뇨<前出> 장춧 간고
저 흘 때라<將欲收斂之時也 全 30> 어운탈시니<소31> 어의 결루리<소 5>

이러한 混亂도 이 文獻에서는 比較的 적은 便이라고 하겠으나, 「ㅅ~ㄷ」간의 混亂은 같은 時代의 傾向의 一端이다.

3. 二重母音의 表記에서 일어난 表記의 混亂도 보이나 어느 文獻에서도 散見된다.

썸도약<上 15> 노야 돌디 아닌느니라<再不出痘 痘 17> 떠여니러나<貫起 全 30>……

4. 語頭子音群의 /ㅅㅅ/, /ㅅㅈ/類도 維持되고 있다.

조밭<上12> 이 때에<此關 上 24> 프리<疹 2>

5. 同化作用대로의 發音을 反省없이 그대로 表記함은 다른 文獻과 軌를 같이하나 그 例가 稀
센 적다.

섬돌초여드랜날<소 5> 정월 초하룻날 새배<소 9> 이튿날<소 9>

오로 이 때에 인느니라<全在此關 全 24>

6. 같은 語辭의 表記가 여러모로 갈리는 것도 있어 아직 固定되지 않은 것도 있으나, 이러한
例는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

紫草: 즈초<소17> 紫草茸: 즈초움<소19> 지취움<소20> 지취움<소20>

以上으로 보면, 「諺解痘瘡集要」의 表記法은 그 執筆者の 言語記述의 態度가 比較的 高水準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3. 諺解胎產集要

이 文獻의 表記法은 앞의 諺解痘瘡集要의 것보다 훨씬 表記法의 規範을 考慮하고 있음이 드
러난다.

1. 格助詞의 경우 :

수동귀<12>~알 안는 들의<11> 들의알<37> 손뽕발뽕불<12> 남진너<12> 뒤싼너<處格10> 과
운놀<氣16> 스지와 일신이<肢體13> 허리와 등을<20> 경괴츠니과 거집 혈괴 쇠하너논<1>해
리와 등을<20>

이러한 表記의 混亂은 動詞의 語幹末音이 子音인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밥 물먹그되<12>~소곰물에 숨써머그되<3>

에서/먹그되 /~/머그되/의 誤記가 發音에서 온 것은 아니라고 본다.

2. 同化作用의 例 :

단냥<五兩3> 인논고돌<14> 받드시 돈느니라<必俞13> 이 증 인느니<有此症12>

물하여시모로 <11> 흘러드루모로<流入36>

그러나 이러한 混亂은 比較的 적은 便이며 「석냥(三兩6) 죽느니라(死8)」와 같이 同化作用에
말려들지 않은 것도 많다.

3. 語幹末音의 「ㅅ」을 「ㄷ」으로 誤記하는 例가 至極 적다. 「물하몬(17), 파원민(19) 닫고
(閉26)」에서 正當히 使用되고 있으며, 「비치(色14), 쯤바(倦13 짓피더말고(可可喧21) 씻고(洗4)」
와 같이 正當한 使用이 大體다.

4. 二重母音이 Hiatus를 形成했을 때에는 가끔 音節境界의 混同에서 誤記를 犯하고 있음은
다른 文獻의 경우와 같다. /되야>도야/는 곧 /toi-a/)/to-ia/와 같은 過程에서 說記가 일어나는
것이다.

문저 도야<<되야8> 일편도이<偏11> 망냥도이<妄37> ㄱ야<探16>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이 時代의 共通된 表記의 特徵이다.

5. 語頭子音群의 /ㅅㅅ/, /ㅅㅈ/도 그대로 維持되어 있다.

초밭 서말<糯米三斗6> 초 뵈 물에<醋湯6> 썩물에<艾湯10> 췌 거술<鹹12> 쌀골톨<米粉73>

이것도 特記할 것은 못된다.

4. 東國新續三綱行實圖

이 東國新續三綱行實圖는 그 分量에 있어서 當時로서는 最高의 文獻이 되며, 執筆者 또는 翻
譯者도 決코 單一人이 아닌 多數의 人士이었다고 짐작이 되는데, 이것은 表記法의 混亂의 濃度
와 個人의 文體의 特徵이 곳곳이 差異가 있는 것이 發見된다. 그러나 이러한 混亂의 偏在을 가
지고 執筆者의 責任限界를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混亂의 傾向만을 資料面
에서 例示할 따름이다.

1. 格助詞의 경우 :

손마락글<指 乾孝三 67, 74> 흙글<土 孝三 64> 손가락글<孝三 52>

며국괴 드라드러<赴敵 坤忠一 6> 도적기<賊 坤烈四 73, 乾烈 59> 상복글<喪服 坤烈二 14>
이러한 例는 그리 頻度가 잦은 것은 아니나, 一般의인 時代的인 表記法의 混亂傾向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2. /r/~/n/의 混亂:

이 文獻에서는 /ㄹ/과 /ㄴ/間의 混亂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이 決코 語頭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프닐 븐들고<挽草 坤烈四 76> 구스닐<珠 acc. 坤忠一 10> 해닐 땡마라<炬, 乾孝二, 69> 어미닐<母 소三 39, 76> 빙소닐<소上> 칼닐<刀 소上> 시묘하기닐<侍墓, 소上, 52> 성고기닐<소 57>
上例는 主로 對格「물」의 誤記이었지만 活用에서도 나타난다.

손가낙을<指 乾孝三 49> 죽거물<소 46>

과 같은 경우도 間間히 나타나서 /r/ 또는 /l/과 /n/間의 混亂이 엿보인다. 이러한 混亂의 경우는 文獻에 따라 줄기차게 持續됨을 느끼게 한다. 語頭의 「라」는 다 「니」로 表記됨은 거의 文獻間에 共通된 것으로 「니명디<李明知 乾孝二 57>」「니시<李氏 乞 81>」가 그 一例다.

3. /ㄷ/의 鑑用:

/ㅅ/系의 「ㅅ ㅈ ㅊ」의 받침이 /ㄷ/으로 誤記되기도 한다.

더열져라<燃爛 烈二14> 이올사롬이<乾孝二69>~이우지 들고<소 70> 우질고<叱, 소 69> 일더니<有 소 78> 장춘<將 소 84> 하열거닐<소 84> 여슬히물<소三 3> 흰을 번디 아니코<소 5>~흰웃<소二 78> 되열거닐<소三 34> 여슬히<六年 소 38> 만보고져 하거물<嘗 소 57>

이러한 /ㄷ/의 使用은 다른 文獻에 比하여 頻度가 大差없는 셈이다.

4. 同化作用에 따라 發音대로 表記한 例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

훈 소노라<造格, 乾孝, 12, 「今之撲虎」條>~손으로<坤烈四 15>

효성오로<乾孝, 11 「王良白裘」條>~이시모로<有孝二60>

뜰인논<坤忠一2> 하연논나<忠三 「鄭李上院」條>

이러한 同化作用에 따른 表記는 比較的 적으나 이미 「드록~도록」에서 「도록」이 優勢함을 느끼게 한다.

오라도록<乾孝二89> 모도록<소三 9> 몸이 모도록<坤忠一7>

새도록<激夜 孝「今之撲虎」條>~이받드록<소「自革盡孝」條>

이같은 言語發達에서 新舊兩形의 存在가 表記法에 影響을 끼치고 있음이 뚜렷해진다.

그러나 이것도 이 文獻의 限한 것이 아니며 이 時代의 文獻들의 共通 傾向이다.

5. 語頭子音群의 /ㅁ/, /ㅂ/의 使用도 잘 表記되고 있다.

쁘니<射 坤忠一 10> 뜰인논<乞一 2> 수리 빠 뻘<乾孝二 68> 그뻘에<소一 80>.....

6. △音도 間或 나타난다.

ㅁ슴<坤烈一 2> ㅁ술<孝六 22> 아슴<孝七 21>……

그러나 아마도 이 文獻이 △表記의 最後에 該當할 것이 아닌가 하다, 그렇다고 △音의 使用과는 別個의 問題가 될 것이다.

7 母音調和의 混亂은 莫甚한 것이다 그 一例로/햏야/~/햏여/의 動搖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 이것도 이 時代의 特徵이 될 것이다.

햏 야	햏 여
위햏야<坤烈四 74>	효도햏여<坤烈四 73>
설혼날룰 햏야<소 74>	우로햏여<소 74>
벼슬햏야 이서<坤忠一 11>	히햏여시니<許 所 74>
장만햏야<소三 38>	괴결햏여짜가<소 19>
	아니햏여<소 19>
	땡서햏여<소 13>
	햏열거늘<乾 孝二 84>

이렇게 보면 大體로 「햏여」가 優勢한 것으로 보인다.

以上은 비록 濃度의 差異는 있으나 이 時代의 共通된 傾向의 一端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5. 家禮諺解

이 家禮諺解에서도 같은 表記法의 混亂이 나타난다.

1. 格助詞의 경우 :

흠거<處格 一 44> 糞기슁글 니온 齊라<家禮圖 2> 세幅기<소 3> 躁논 발뽕측기라<一 44>

앞쁘로<前 圖 11> 앞쁘로뻬<一 11> 앞피<一 24, 45> 急피<序 3>

그러나 이러한 混亂은 다른 文獻보다는 頻度가 낮은 것으로 본다. 一般으로 「네 幅이(一 38) 세 幅이오(一 42), 발뽕측에(一 38), 기슁이(一 38), 앞피(圖 19)」 등과 같이 當時로선 比較的 正規의 表記法을 지켜온 傾向이 짙다고 하겠다.

2. 終聲「ㄷ」의 濫用 :

이 文獻에서는 終聲「ㄷ」의 濫用이 그리 甚하지 않다.

죏타<如圖 4, 四 13> 죏타호게<一 42> 죏타호믄<一 44> 죏타<一 29>~죏꼬<一 45> 죏뽕되<一 38>
죏타 햏야<一 40>

밋동이<圖 11>~밋둥<一 38>

從兄弟과 밋 再從兄弟<一 17>~그 祖와 밋 父를<一 18>

물고<問 四 10>~물조오덕<四 30>, 물조온대<一 13>

여기서는 /ㅅ/이 使用될 곳이 /ㄷ/의 濫用이 그리 甚한 便은 아니다. 「물홀거시니<序 3>」類의 「물」이나, 「물」은 古型의 表記法의 殘滓인양 느껴진다.

3. 同化作用의 例 :

表記法의 規範의 意識이 薄弱하게 되어 同化作用된 發音에 隨從한 表記例가 적지않게 나타난다.

인늬니물<圖 8>~잇늬니라<圖 3>

인늬 지비<一 18> 쓰디 인늬니<一 18> 학연논가 학노라<一 36> 되연늬더라<一 19> 만히 뻔늬니라<一 7>

물조온대<問 一 13> 없쁘모로<一 12>

그러나 이러한 表記法의 混亂도 많은 便은 아니다.

이 밖에 「글 잘 스늬니늘 命하야<一 33>」의 /n/~/r/의 混亂이나 「從兄弟과 再从從兄弟<一 17>」도 드문 例로서, 本文獻은 比較的 表記法의 規範에 대한 意識이 強했던 것으로 着做된다. 이 外에 語頭子音 群/ㅁ/, /ㅂ/ 類의 使用은 많아서 더 言及하지 않기로 한다.

6. 重刊本 杜詩諺解

이 重刊本 杜詩諺解는 初刊本에다가 17世紀의 言語表記가 混入된 것으로서 表記法 傾向을 알기에 좋은 資料가 된다고 하겠다. 여기 杜詩諺解 卷15를 놓고 두 板本을 比較하여 17世紀 表記法의 傾向을 밝히려 한다.

1. /r/~/n/의 混亂 :

불료물<招>~불노물<7>

즐기논 거시언마론>즐기논 거시언마논<16>

나물 도라본덴>나눌 도라본덴<31>

이것이 드물게 나타나지만 17世紀의 表記法의 混亂의 一環이다.

2. /ㅅ/~/ㄷ/의 混亂

곶눗다<如>~곶도다<41> 물거우니<厚>~똥거우니<46> 돌 잇는 수프페>돌 일는 수프페<10>

갓잡거늘>갓잡거늘<42>

3. /지/~/디/의 混亂 :

이미 /디/~/지/의 口蓋音化現象에서 /디/의 發音이 /지/로 됨에서 일어나는 混亂이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例들이 보인다.

나뭇가지예>나뭇가디예<4>

가비야은 옷과 술진 물>가비야은 옷과 살딘 물<4>

고지<花>>고디<6> 도홀고지>도홀 고디<6> 프른 지즌<翠羽>>프른 디즌<33>

4. 格助詞의 表記에서 :

名詞의 末音이 /k/, /n/, /r/, /m/인 것을 흔히 case의 後行에서 /kk/, /nn/, /rr/, /mm/으로 表記하는 傾向이 나타난다. 이것은 副詞의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17世紀의 一般的 混亂傾向이다.

北녀글>北녀글<32> 칩칙기>칩칙기<3> 다북다보기>다북다북기<1>

자놀 머구머셔<衛盃>>잔놀 머구머셔<40>

빛대 디룬는<刺船>>빛대 디룬는<10> 잘 손놀 맞고<迎 夜客 12>

물곤 수물>물곤 술물<40>

수물 노홀며<置酒>>술물 노홀며<45>

낫바물>낫밤물<3> 사룩물>사룸물<6> 늘근 사룩미>늘근 사룸미<9> 楚入사룩미>楚入사룸미<14> 말스미>말슴미<41>

5. 主格表記의 /ㄴ/ :

主格表記에서 「이」와 「ㅣ」의 區別이 混亂되고 있다.

梅杏이>梅杏ㅣ<22> 興이>興ㅣ<29> 使君이>使君ㅣ<30> 沙色이>沙色ㅣ<31> 사룩미>사룸ㅣ<21> 넷園이>넷園ㅣ<1>

이것이 「이다」의 所謂 指定詞에서도 混亂이 나타난다.

既夜ㅣ어놀>既夜이어놀<49> 芙蓉園이오>芙蓉園ㅣ오<22>

이 現象은 16世紀末葉의 文獻에서도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새로운 傾向은 아니다.

6. 辟瘟新方

이 辟瘟新方은 表記法에서 보면 3年뒤에 刊行된 警民編보다 保守의인 古體의 要素가 많이 內包된 것으로 보인다.

1. 語頭子音群의 表記 :

우선 語頭의 /ㅁ/, /ㅂ/이 적지 않게 使用되고 있다.

니밭<白米 3, 10> 북그로<蓬 13> 쏘이거나<曝 1> 계즈뵈<3> 때로<時 5> 쓰더말라<11>

두 세복을 뵈<2> 뵈니라 따 머그되<10>

이런 傾向은 이 뒤에도 相當히 持續되는 것이며, 勿論 이 文獻만의 事實은 아니다. 여기서 「때(時)」가 「뵈」로 表記됨은 이 時代의 特記할 事實이다.

2. 同化作用에 대한 表記 :

表記法에서 同化作用대로 反省없이 表記되는 예는 여기에서도 나타난다. 「있다(有)」의 活用에서 /-ㅅ- /> /-ㄴ- /의 同化作用의 混亂대로 表記되기도 한다.

안히 인는 중에<5> 바의 인는<2> 돈느니라<好 3>

그리고 「솔림(松葉 14)」도 보인다.

3. /ㄷ/ 받침 保用:

/ㄷ/받침의 使用이 間或 나타난다.

빈북 가운데에<3> 몰홍몰 고티느니<5>

이 「몰」은 古體의 表記例이다.

4. 二重母音의 表記:

/이/에 대해서 이것을 二重母音으로 意識했던 듯하다. 그 例로서 副詞의 「릭이(烈)」~「막이」間에 動搖가 보인다.

(a) 막이<烈 3> 막이 달려<4>

(b) 립이<濤 3> 립이 달려<4>

5. 語中에서의 硬音化的 表記:

語中の 硬音化的 強調된 表記가 나타난다.

맛쌍이<2> 첫뿔<十二月 7> 홀찌니라<5> 우히 안소<3>

그러나 이 反面에 硬音化的 表記가 있음직한 곳에 도리어 그 表示가 없는 例도 있어 表記法의 不一致를 말하고 있다.

잠간<暫間 2> 홀디라<5>

6. 語幹末音의 aspirate表記:

이 文獻에서는 語幹末音의 aspirate가 格이 後行할 때 다른 文獻과 달리 表記法의 새 傾向을 보이고 있다.

과 밋흔<3> 복성화 님흔<3> 님홀<14> 동녀호로<14>……

다른 文獻에서는 「밋흔, 님흔 녀크로」가 될 것이다. 여기서 /ㅎ/음을 가지고 表記한 새 傾向은 特記할 것이다. 그러나, /ㅍ/, /ㅌ/을 가지고 아무런 技巧없는 aspirate의 表記도 보인다.

마릭여<如 1> 고티느니<改 5> 브튼<附 3> 더프면<覆 3> 아프며<痛 5>……

7. 「붓가(炒)」 「복가(11)」로 現代語에 가까이 接近된 表記도 있고 「복그로(13)」에선 이 時代의 混亂된 表記도 있다.

8. 警民編

警民編의 表記法은 이미 固定된 것으로 보여 다음과 같은 諸點으로 要約된다.

1. 格助詞의 表記:

語幹과 語尾의 識別이 表記法에 나타나 있다.

봉양홀애논<33> 처엄이며<놀> 막음이<34> 어딘막음으로<序 2> 사롬이<11> 사롬을<18>

그리고 主格 /이/의 表記는 다른 文獻보다 古語의 表記法에 따라 嚴格하다.

道도 | <3> 夫妻처 | <3> 江州쥬 | <25> 父母 모 | <28>

그러나 語幹末音 /ㅅ/의 경우는 格表記가 遊離되지 않고 表音대로 表記되었다.

항거술<7> 업슨거술<15> 거두는거술<11> 업슨거술<25>……

또 共同格의 /와/와 /과/의 混亂이 보인다.

형과 아와와 못누의과<4> 아와과<5>

2. /ㄷ/받침의 使用의 衰退:

/ㄷ/받침의 使用이 거의 없어져 간 것인데, 이것은 後期의 表記法의 固定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 예로서 ㄷ뎡뎡하디라(如 28), ㄷ고(6)]가 그 代表例인데 /ㄷ/받침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 其外의 特徵:

同化作用으로 混亂을 이끄는 예가 이 文獻에선 極히 드물게 나타난다. 「分이 인느니(9)」~「다 罪 잇느니라(8)」가 고작이다.

/l//r/의 表記에서 때로 混亂을 보이는데 그 예는 極히 드물다.

진실노<34> 항거의 결례<7>

語幹末音의 aspirate의 表記도 固定되었으나 「잡을(報)」이 「은허 잡을 줄을…(29)의 「잡을」이 보이기는 하나 그 예가 極히 드물다.

이 警民編의 表記法은 現代語로의 一步 接近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表記法이 17世紀 後半期에 들어서 점차 固定되려는 傾向이 이 文獻에서 짙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 警民編과 老乞大諺解로 내려갈수록 多少의 들쭉달쭉은 있어도 새 時代의 表記法으로 들어선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뜻에서 警民編은 表記法에서 보아, 새 區劃線上의 文獻이라고 하겠다.

9. 老乞大解新

이 老乞大諺解에서는 表記法의 傾向도 17世紀 前半期보다 固定되어 甲午更張 以前の 表記法의 方式이 漸進의으로 形成되어 감을 느끼게 한다.

1. /ㄷ/받침의 衰退:

17世紀 前半期에서 보여주던 /ㅅ/받침 位置에 /ㄷ/받침의 濫用이 大幅 修正되고 도리어 /ㄷ/받침을 使用해야 할 位置에 /ㅅ/받침이 使用되는 逆現象이 짙어간다.

못아줌아<大嫂 上 23> 밋더 아니커든<信 上 17> 쯏티<似 17> 내뿔과 쯏다<全10> 굿다<全35>
 못헛엇는가<全23> 못헛는 듯헛다<18> 스프낫돈<20> 원낫돈<21>

이렇게 되니 도리어 /ㄷ/받침의 大量衰退가 엿보이며 뒤에 問題의 /ㄷ/받침의 一掃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副詞「곧(側)」과 「곳」에서 「곳」이 斷然 優勢해진 것도 이러한 大勢의 一端이라고 하겠다.

2. 格助詞의 表記:

여기서 語幹과 格助詞의 識別이 表記法에서 나타난다.

닭이<鷄 上 34> 거름이<步11> 여섯말이<六箇馬11> 소음울<綿 12> 서너돈 은울<11> 마즘울<打 4>
 받돌에<半月 1> 네 집의 와<21>

그러나 「늑치(面37), 더로미(減 21) 쉬물(休 22)」과 같은 表記가 없는 것은 아니나, 語幹과 格語尾의 識別을 取하는 態度가 急激히 優勢해 가고 있다.

3. 同化作用의 表記法:

여기서는 同化作用의 發音대로의 表記例도 極히 드물다. 「초헛룬날(1)」이 있기는 하다.

잇는가 업슨가<16> 잇늑나라<28> 잇늑냐 업스냐<28> 못헛엇는가<23>

와 같이 表記法의 規範을 나타내고 있음이 다르다.

4. 語幹末音의 aspirate의 表記:

語幹末音의 aspirate가 後行하는 母音으로 뚜렷이 發音됨을 表記할 때 다음과 같은 從來의 表記傾向이 나타나기도 한다.

보습피고<23> 압피<前24> 압호르<9> 전넌부터<24> 오놀부터<32> 북녁키<北15>

그리고 「설혼다숫시라(6)」의 「다숫시라」와 같이 語幹末音 表記에 模索이 엿보인다.

이 老乞大諺解는 앞의 警民編과 함께 表記法에서 새 時代에 들어선 것이며, 特히 會話體의 文體에서, 現實口語의 使用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朴通事諺解도 大同少異한 文獻으로서 朴通事諺解의 檢討는 省略하기로 하고 1698年(康熙 37)刊인 新傳(取燭)煮硝方을 考察키로 한다.

10. 新傳煮硝方

17世紀의 最後의 文獻으로 보이는 1798年刊의 이 文獻은 이미 表記法의 固定이 看取된다.

1. 格表記의 遊離:

格表記가 語幹에서 區別되어 表記된 것이 두드러진 傾向이다.

흙이<土 1> 흙울<2.5> 맛이<味 2, 8, 10> 너 말울<四斗 3> 흙울<寬 5> 물이<水 5> 물울<12>
 불의<火 6>……

勿論 모든 例가 다 이같이 表記된 것은 아니지만 格을 遊離시켜 表記하려고 하고 있다.

2. 語中에서의 aspirate의 表記:

담밋히<牆根 1> 딥히며<藁 2> 깊히<深 2> 고슴뚝피<蝟 8> 뽕히고<洗 14> 념피<傍 5>

그러나 古體의 表記法도 지니고 있기는 하다.

3. 用言의 活用에서도 相當數 語幹을 區別하러 하였다.

그 알아내기 쉬움이더라<2> 지 밧음이라<取灰 2> 옷물을 들오면<倒水 8> 又 밝으며<天明 18>
밧돌아<爲 5> 꺾어 쓰면<2> 밧으며<踏 2>

4. /ㄷ/받침의 一掃: 지 밧음이라<取灰 2> 又 느니<如 8> 以下略

5. 全濁音의 硬音使用:

15世紀의 傾向이 되살아난 感이 있어,

더디 못홀 꺾시니라<4>

쓰지 아니홀 꺾시니<6>

뻬라 념을 위홀이어 놀<10>

슬필머니라<12> 깊히 말머니<2>

머키를 띠이 학되<18> 토목거위 홀 즈래를 땃어서<用吐木幾一迭 9>

「홀것, 홀머니」에서 /ㄱ/, /ㄷ/의 geminata가 보인다. 「뻬라」 「머키」는 特異例라고 하겠다.

6. 語頭子音群의 表記:

이 文獻에서도 /ㅃ/, /ㅆ/의 語頭子音群이 그대로 維持되고 있다.

꺾어 쓰면<2> 뽕은<2> 띄야<曝 2> 쓰디 못홀느니라<3> 뻬<以 3> 뻬티는 거시라<振 9>
이때에<15> 뜻<意 17> 뽕고<穿 5>

그러나 「쌀시은 꺾은 쓰믈로<18>」의 「쌀(米)」은 「쌀」이 아닌 以上, 實際의 發音에서 보아 이러한 子音群이 保守的表記에 지나지 않은가 한다.

7. 二重母音 또는 Hiatus의 單母音化가 이루어져 가는 자취는 보이지 않는다.

「語幹+오/우+디」는 거의 「되」로 唇音化되었는데, 表記法에서 아무런 混亂이 보이지 않는다.

편코 조호되<便好 5> 나되<6> 다오되<策 5> 쓰되<用 9> 주어내되<拾出 3>

但 「뽕글에 널러쇼되<17>」의 「되」는 아직 古形을 維持하고 있으나 二重母音인 立證으로는 되지 않는다.

8. 主格「ㅣ」의 濫用:

아교ㅣ<17> 모쵸ㅣ니라<毛硝也 8> 반가마ㅣ<半鍋 8> 훈가마ㅣ<5> 각 조ㅣ<角 6> 전비목조ㅣ
(削排木槽 1) 염쵸ㅣ<11>

이것이 15世紀에서 漢字語의 漢字表記의 경우의 主格表示法인데, 한글의 경우는 있을 수 없다. 이것으로 「목조ㅣ」가 「의」의 二重母音表示이라고는 보기 어려울 듯하다. 特히,

되가 변홀이<12>

에서 主格「가」의 登場이 들어난다.

9. 母音調和의 衰退 :

提題格의 「-는」「-을」이 거의 絶對的이고 先行母音과는 關係없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對格에서는 「-를」과 「-을」이 거의 絶對적으로 固定되어간 것이고 오직 「...것」에서 「-거슬, -겨슬(17)」이 나오나 이 文獻에서는 表記傾向이 固定되고 있다.

即 母音의 뒤에서는 「-는, -를」이고 子音 뒤에서는 「-은, -을」이 絶對的이란 것은 이 文獻에서 더욱 强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이 新傳煮硝方은 그 時代로는 保守的인 表記法을 取한 것임은 「흙(± 1, 5, 6, 9...)」이나, 古形의 維持에 努力한 듯함에서 그리 짐작되나, 新舊兩形에서 新形의 語彙가 一方的으로 使用된 것으로 그 時代性에서 當然하다고 하겠다. 「민들아(爲 5)」 「조호되(好 5)」 「치디고(沈 8)」 「익긔(盡 8)」 「온갓(皆 9, 15)」 「흔 사발(一椀 8)」이 그것이다.

以上 10種의 文獻을 對象으로 그 筆者의 表記法을 檢討하고 이에 결들여 그 言語的 事實을 簡單히 指摘한 셈이 된다. 17世紀 初期의 表記法의 混亂이 그 末期에 가까울수록 近世語의 表記法이 劃一的인 것이 못되지만 固定되어 가려는 傾向과 新形의 語彙와 交替되어 가는 過程이 着取되는 터이다.

Ⅱ. 17世紀國語의 音韻史的 構想

1. 母音論

(1) 單母音

17世紀의 母音體系는 中世國語와 달리 相當한 變化가 일어난 것으로 짐작된다. 아무리 保守的인 表記法으로 陰蔽되어도 現實의 言語狀態를 完全히 陰蔽할 수는 없어서, 文獻에 따라 濃度는 다르지만 이모 저모로 現實言語의 實態가 露出되고 있어, 여기 母音體系의 變化를 規定할 수 있다. 따라서 母音體系의 實態를 把握하기에 앞서 우선 各 母音의 表記例를 考察키로 한다.

여기서 우선 單母音의 考察로 들어가려는데, /ㄹ/音이 크게 問題가 된다. 이 /ㄹ/音이 17世紀에 存在하였는지가 表記法의 混亂에서 究明되어야 한다. 15世紀에는 /ㄹ/音이 存在한 것이지만, 第二音節 以下에서는 많이 /으/音과 混亂을 일으키어 그 傾向이 後代로 내려올수록 混亂의 濃度를 더하던 것인데 17世紀의 初期·中期·末期에서 이 /ㄹ/音이 存在하였는가, 또는 混亂되고 動搖되고 있는가가 밝혀져 母音의 體系가 解決된 것이다. 17世紀의 問題가 되는 것은 「흙(土)」과 「스매(袖)」의 두 語彙인데, 이들이 一見 doublet와도 같이 나타난다.

1. 흙(土)

즌흙으로 마고 볼라<痘瘡 上 9>

흙질 범 학니논<泥犯者 胎產 14>

흙글 저서<攬土 東新 乾 孝 二 64>

흙 저 날마다 무덤우회 올리니<全 孝 2 「患伯捕虎」條 1>

흙밥기<泥托 朴 下5, 譯語 下 17>

Cf. 흙과 돌흙 지어<全 孝 8 「梁郁感虎」條>

흙기며 돌흙 지어<全 孝 17 「思用攬土」條>

그러나 그 뒤 文獻에서는 거의 古形인 「흙」을 表記하고 「흙」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 17世紀 末에 이르러서는 「흙」도 間或 나타나기는 하나 그 勢力은 問題가 아니다.

흙덩이<土塊 譯語補 6>

흙무더<土堆 譯語上 8>

흙 모흙이라<取土 煮硝 1>

버뜨린 흙울<採土 全 5>

흙을 밧트면<篩土 全 6> 흙과 직<土灰 全 9>……

여기서 17世紀 初에 現實言語인 「흙」이 露出되었으나, 保守的인 表記에 가리워 新傳煮硝方의 時代에도 잘 드러나지 않고 만다. 그러나, 17世紀에 이미 「흙」이 「흙」으로 發達된 時代라고 斷定할 수 있을 것이다.

2. 소매(袖)

소매로 마리오고<東新 袖 烈 四 14>

도침틀 소매에 너혀<全 坤 忠 一 20>

袂는 소매 어귀니<家禮圖 2, -43>

허리 가운데 소매 어귀<全圖 2>

Cf. 소매 어귀에 니트면<全 一 38> 소매 어귀과<全 45>

3. 말숨(言辭)

원컨대는 흙 말숨하고 주로 거시니<東新 坤 忠 一 11>

이 「말숨」은 「말솜 말솜」의 發達로서 이미 16世紀初에도 나타난 것으로서 새로운 例도 아니다.

상넷 말소매 널오더<常言道 初刊本 朴通事 上 14>——마숨 어<語 訓字 下 28>

그 말숨하며<其言談 翻譯小學 九 11>

그러나 이 「말숨」은 17世紀에도 固定된 것도 아니므로 여기서 「소매」와 同價로 다룰 수는 없을 것이다. 「소매」나 「말숨」이 다 같이 唇音과 齒音에 介在된 /ㄹ/音이 唇音化作用으로 圓唇母

音 /ㄹ/ /오/로의 發達은 이제 舉論할 것은 없지만, 「말씀」이 固定되지 않은 것이니, 여기서는 「흙」과 「소매」의 例만을 다루기로 한다. 17世紀初에도 이미, 「소매」는 소매로 發達한 時代라고 斷定하며, 「소매」도 「흙」과도 같이 이 두 文獻에 나타나는 頻度도 保守의인 表記에 눌러 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흙·소매」의 出現을 어찌 解釋할 것이냐가 問題다. 이것은 /ㄹ/音이 第一音節에서 /아/와 같이 發音되고 意識되었을 것이어서 保守의 表記法에서 從來의 慣習으로 /ㄹ/를 使用하여 온 것이다. 그 發音은 이미 /아/와 同價로 意識되었을 것인데, 여기 /ㄹ/=아/로 解決되지 않는 例外的인 存在가 곧 「흙」과 「소매」라고 하겠다. 「흙」은 /ㄹ/ /으/, 소매는 /ㄹ/ /오/의 發達이어서 아무리 保守의 表記法이라고 해도 實際의 發音과 表記法과의 差異가 커서 不便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도 하겠다. 여기서 /ㄹ/=아/의 民衆의 意識에서 「흙」「소매」만은 이로 「커버」할 수 없어 不得已 現實言語인 「흙 소매」의 現實 그 自體대로 露出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17世紀는 /ㄹ/音의 消失한 時代라고 斷定하는데, 이와 아울러 /ㄹ/를 가진 二重母音 「이」에 대하여 考察키로 하는데 우선 頻度가 높은 「히다(白)」가 問題가 된다. 그러나 17世紀에는 「白」이 「회」로 表記됨이 一般인 것도 /ㄹ/音의 消失과 同時에 /이/의 消失도 當然한 것이라고 하겠다.

파 흰 밑 두 줄<葱白二根 胎產 19>

흰 옷과<白衣 東新 坤 烈二 11>

흰을 벌디 아니코<全 乾 孝三 5>

흰것 넘고<全 孝 烈二 12>

흰옷하고<全 乾 孝二 78>

흰 기즈피 휘 ㄹ에<朴上 27>

흰 되는 맛이 숨겹고<白者味談 煮硝 2>

흰 남이<白蛾兒 譯語 下 34>

그러나 「히다」가 全然 나타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흰 뿔이(車新 坤 烈二 11)」이 나옴은 表記法으로선 當然하다. 이것도 「빅(腹·船·梨), 히(太陽), 너(煙), 직(灰)……」가 /애/로 發音됨에서 /ㄹ/=애/로 意識되어 表記法으로 無理가 없으나, 「히다」만은 「회다」의 「회」로 發音됨에서 「흙」의 경우와 같이 例外的 發達을 거친 것이 된다. 「히다>회다>히다」는 例外的인 發達이니 現實發音과 表記法 사이에 벌어지는 差異를 커버할 수 없어 現實發音대로 表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 많은 /ㄹ/系 語辭 속에서 「흙」·「소매」만이 現實語로 露出되고, 또 그 여러 /이/系 語辭 속에서 「회다」만이 現實語로 露出된 것도 다 例外的인 發達에서 現實語와의 지나치게 벌어진 間隙으로 말미암음이다. 따라서 17世紀에는 /ㄹ/은 /아/와 同價의 音價도 認識되었을 것이고, /이/는 /애/와 同價의 音韻으로 認識되어 여기 /ㄹ/音은 事實上 第一章節에서

도 消失된 時代라고 判定된다.

다음에 /ㄹ/音을 中心으로 한 두 語彙를 例示하려고 하는데, 우선 15世紀의 「도죽(盜)」이 17世紀에도 「도죽」으로 나타난다.

도죽형역<賊冷 痘瘡 上 17>

도죽하다가 득인의 시묘막에 와보고<東新 乾 孝 21 「得仁惑倭」條>

이것은 15世紀의 語形인데, 訓蒙字會에서도 「도즈 도(濫), 도죽 적(賊 中 4)」의 그대로다. 그러나 初刊本 朴通事에서,

늑 락 겨지불 마마니 도죽하야 얻노라<上 35>

에서는 「도죽」으로 나타났으나, 이 「도죽」은 第二音節의 /ㄹ/音으로는 當然한 過程같지만 固定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 「도죽~도적」을 連結시킬 수는 없다. 17世紀의 大體의 傾向은 「도적」으로 나타난다.

도적의 해흔배 되다<東新 乾 孝 6 「原桂陷陣」條>

예도적울<倭賊 全 坤 烈 四 75>

도적이 주기다<全 76> 도적기<坤 73>

도적기 뿔와 강의 미츄니<全 乾 烈 3 「烈婦入 江」條>

그 도적이 官司옥에 번드시 이셔<老 上 27>

이것은 「도죽>도죽>도적」의 發達이 아닌 바, 漢字音 「도적(盜賊)」으로의 復歸라고 하겠다. 即 漢字音에서 온 發達이라고 보며 決코 /ㄹ/音의 發達로 一律적으로, 따질 資料는 아니라고 하겠다.

漢字音에서 「學」字의 字音이 여기 一考할 必要가 있다. 「學」字는 入聲 覺韻이어서 「各·覺」과 아울러 「학」일 것이다. 따라서 東國正韻에서도 「학」으로 制定한 것은 當然하다고 보는데, 15世紀以後의 文獻에는 「學」字音이 「학」으로 表記되어 있다. 그것이 東國正韻의 字音을 따르지 않은 것이면 모조리 「학」으로 되어 六祖法寶壇經諺解·翻譯小學·訓蒙字會·類合에서 「학」으로 表音되고 있고, 17世紀에 들어와서도

의학<醫學 胎產 1>

의학입문<醫學入門 痘瘡 上 1>

대대학<大提學 東新 乾 孝三 24>

유학<幼學 全 35, 坤 忠一 70>

학관<學官 全 72>

학형이 임더니<乾 孝三 48>

또 학당의 가서 품쓰기 학고<老 上 2>

위와 같이 表記된 것인데, 이것이 17世紀에 限한 事實도 아니고, 이 뒤의 發達에 어느 要因

을 가져올 問題도 아니나, /ㄹ/音에 관한 漢字音의 問題로선 一考할 만한 것이라고 하겠다.

以上으로 單母音에서 /ㄹ/音의 考察을 一段 끝막으려 하는데, 朴通事諺解에서 나타나는 事實로서 第2音節 以下에서 /어/~/으/間의 混亂의 例를 본다. 이것은 아마도 母音位置에서 /어/와 /으/의 近位置임을 말함에서라고 速斷하기는 어려워도 그 混合의 理由가 궁금하다. 우선 例示하고서 따지기로 하자. 그것은 aspect에서 未完了의 過去를 나타내는, 一種의 durative aspect인 /더/와 假想의 구실을 나타내는 /드/間에서 나타난 것이다.

(a) 일렷더라<早上 48>

네홀 접자 ㅎ더니<소 23>

갓더니<3> 支興 ㅎ더과<소 3>

(b) 니르더 아니 ㅎ드나<소 23>

업드라<48> 나를 주드라<소 3>

(c) 어더 갓든다<소 14>

비단 사라 갓드니라<소 14>

여기서 「ㅎ다」로 計算하면 (a)는 「ㅎ더라」요, (b)는 「ㅎ드라」요, (c)는 「ㅎ드라」에 該當한다. (c)의 「갓드니라」는 「갓더니라」가 옳은 것이고, (b)의 「주드라」도 「주더라」이어야 하나, 이 事實을 들고 그 理由를 따져 보려 한다. 첫째, /더/~/드/間의 混亂이 첫 問題이어서 第2音節의 特異性에서 母音位置의 近似에서 일어난 混同이라고 본다. 두째로, 그 /드/가 第2音節에서 흔히 있는 /ㄹ/~/으/의 混用에서 類推된 것이려니 한다. 세째로, 이것은 第2音節이라는 特異性이 發音의 不分明을 가져오기 쉬움에서 일어난 混亂이라고 보인다. 여기서 얻는 것은 17世紀末에서도 /어/~/으/ 間의 混亂이 그 母音位置의 近似를 意味하는 것이란 事實이다. 이것은 禪家龜鑑에서도 나타난다.

몹결 니룩와드 샤미라 널얼디로다<2>

閑道人的 眞樂 1라 널얼디로다<5>

眞實로 미치다 널얼닐로다<6>

이 「널얼」도 「널을」이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도 /어/~/으/의 發音의 近似에서 오는 混亂으로 解釋하려 한다.

以上과 같이 보면 17世紀의 母音體系는 15世紀와 달리 單母音의 體系는 6母音體系가 아니었던가 한다. 우선 第一次의 假案으로서,

/아(ㄹ)/ /오/ /으(ㄹ)/陽母音

/어/ /우/ /으/陰母音

/이/中性母音

과 같이 꾸며본다.

그러면 여기서 疑問을 느끼는 것은 17世紀는 /ㄹ/音의 消失時代로 보는데, 各 文獻에 表記된 /ㄹ/系 語辭의 表記가 第1音節인 경우에는 거의 15世紀의 /ㄹ/音系의 語源의 識別을 지니고 있는 듯이, 거의 틀림없이 이를 表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마도, 그 識別이 保守的인 表記法의 慣習의 所致이든, 또는 發音과는 遊離된 觀念的인 認識의 所致이든, 이 /ㄹ/音에 대하여 記憶以上の 音韻觀念을 지니고 있었을 것 같다. 例外的인 發達의 「흙 소매 흰」만은 現實言語를 따랐다고 함도 計算에 넣고 보아야 하지만, /아/= /ㄹ/로, 完全한 同一音韻의 兩形表記라고는 認識하고 있지 않았을 可能性도 짙다. 여기서 筆者는 17世紀는 /리/音의 消失時代에 들어선 것이지만 各 文獻의 執筆者是 觀念的으로, 또는 語源懷想에서 /ㄹ/音을 意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오늘날 /의/= /웨/의 서울말에서 /외/와 /웨/가 /외/= /웨/의 같은 發音이지만 別個의 單位인양 意識하고 있는 程度의 것이 아니었던가 한다. 그러므로 筆者는 17世紀는 /ㄹ/音의 消失時代지만 觀念上으로 /ㄹ/音을 別個單位인 音韻으로 意識하고 있었다고 斷定한다 이것이 各 文獻에서 第1音節의 /ㄹ/音을 正書게 하는 制約의 原因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날도 /ㄹ/音을 意識하고 그 發音을 恣意的으로 造作하는 學者가 있음에서 이러한 主張은 決코 無理한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이러한 母音體系를 6母音體系라고 斷定하고 보니, 國語의 母音體系를 意味하는 母音調和의 狀態는 어떠한가를 다음에 考察해 보아야 한다. 이미 /ㄹ/音이 消失된 뒤, 對立의 一部 單位가 缺如된 以上 15世紀와는 相當한 差異를 보일 것이다. 여기 全般에 걸쳐 따질 餘裕는 없기로 몇 項目에서만 考究기로 한다.

우선 禪家龜鑑에서 보면 主題格의 「-는, -는, -은, -은」이 이미 母音調和의 制約에서 벗어나고 있다.

(a) 語幹末音이 母音이면 /-는/이 온다.

儒家는<1> 禪師는<1> 부터 삼는니는<7>菩提는<10> 句는<11> 工夫는<17>

(b) 語幹末音이 /ㄴ/ㄹ/일 경우 混亂을 보인다.

不變는<13> 隨緣는<13> 公案는<13> 參禪는<14> 一物은<1> 道人는<18>

(c) 語幹末音이 子音이면 /-은/이 온다.

無明은<17> 本覺은<19> 呼吸은<21> 法은<23> 消息은<2> 薑은<5> 衆生은<6>

眞心은<9> 悉達은<10>

(d) 그러나 例外도 있다.

病은<23> 法은<23> 曰은<3, 9>

여기서 15世紀에는 「-는, -은」의 優勢가 보였지만 16世紀末에서 17世紀에 걸쳐서는 母音調和의 勢力은 極度로 衰退하고 先行語의 末音의 音韻條件에 따라 格의 連結이 決定되는 것이다. 그러면 다음에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 考察기로 한다. 坤 忠臣圖 卷一에서 추리는데, 便宜上 國

立圖書館刊 影即本の 面數로 出典을 밝히며, 特히人名에서 考察키로 한다.

主提格「-는」:

- (a) 박지화(華)는<445下> 뉴평노(老)는<446下> 도종도(道)는<462下> 뉴종개(介)는<450上> 십덕(岱)는<441上> 치조(子)는<509上> 김희는<459下>
- (b) 김지여(矛)는<453上> 현문혁의 처는<468下> 명옹구(龜)는<456下> 고세두는<451上> 니경뉴(流)는<446下>
- (c) 명조이(召史)는<471上> 호시(氏)는<469上> 안시(氏)는<471下>

主題格「-은」:

- (a) 박남(楠)은<458上> 커산(山)은<459上> 김데갑(甲)은<439上> 니복남(男)은<463下> 뉴극냥(良)은<444上> 김년광(光)은<455上> 김기상(祥)은<450下> 개동은<460上> 고희(洽)은<453下> 자지성(生)은<452下>
- (b) 서견(甄)은<434上> 니회적(勳)은<434下> 니원명(楨)은<435上> 신길원(元)은<445上> 강창국(國)은<449上>
- (c) 니종인(仁)은<439下> 황진(進)은<440上>

여기서 「-는, -은」이 使用됨이 先行音과의 音韻條件에서 決定될 따름이나, 이미 母音調和의 對立云云은 一掃된 터이다. 對格의 「-를, -를, -을, -을」의 경우도 大同少異한 것이어서 여기서 人名의 例만을 추리기로 한다.

- (a) 의를<義 6下> 왕시를<王氏 6> 몽주를<6 下> 효도를<孝道 2下> 죄를<罪 6上> 셔를<3 上> 쓸를<女 5上> 죽기를<6 上> 아버와 그를<2 上>
- (b) 범을<虎 2上> 삼년을<三年 3下> 겹질을<皮 5上> 약을<藥 3下> 사롬을<5上> 창을<槍 5下> 스랑을<5下> 노동을<遼東 6下>

그러나 例外로 「뜨돌(5上)」 「묵수물(6下)」이 있기는 하나, 이미 하나의 連結의 公式의인 傾向이 固定되었고, 母音調和는 거의 去勢된 것이다. 活用에서 「語幹아(어)」의 副詞形과 그 發展된 語尾를 보면, 그 中 「하야~하여」의 動搖 또는 混亂이 날로 甚해가는 것이 엿보인다. 家禮諺解에서 보면,

하야: 하야<圖 3> 즘음하야<— 28> 합하야<— 38> 命하야<— 33>

하여: 하여시니<圖 13> 하여곰<— 12> 하여시되<— 8> 하엿더니잇가<— 14> 하여사<—사 18>
하엿더니<— 29>

여기서 「하여」가 「하엿더니, 하여사」와 같이 「하여」에 다른 語尾가 連結될 경우에 限하는 感이 있으나,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다. 老乞大諺解 上卷의 1—20面까지를 훑어 보기로 하자.

여기선 「하야」보다 「하여」가 優勢해감이 드러난다. 이것이 또한 母音調和의 勢力이 17世紀에 들어서 거의 去勢된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ㅅ	ㅅ	ㅅ	ㅅ
向ㅅ야<1, 7>	날로 ㅅ여<5>	통ㅅ여<20>	
향ㅅ야<10>	향ㅅ여<9>	시험ㅅ여<17>	
ㅅ얏나<20>	ㅅ엿더니<15>	나물위ㅅ여<19>	
글의기 ㅅ야<3>	면ㅅ라 니여<4>	풀고져 ㅅ여<7>	
넌고 ㅅ야<4>	두 낭식 ㅅ여<12>	ㅅ엿더니<15>	
	一統ㅅ여시니<4>	시험ㅅ여<17>	

이제 母音調和의 對立의 實態에서 17世紀의 母音體系를 다시 엮으려 하는데, 15世紀의 傳來인 「보아~두어」의 活用이나, 「토닥토닥~투덕투덕」의 疊用副詞에서 母音의 對立의 維持되어 온 것을 加算하여, 여기 /아/~/어/의 對立이나, /오/~/우/의 對立을 認定하나 /으/~/으/의 對立이 붕괴되었으니 相關性的 對立이 아닌 母音이 /으/와 /이/로 늘고 말았다. 그리하여,

/아/ /오/.....陽母音
 /어/ /우/.....陰母音
 /으/ /이/.....中性母音

} 相關性的 對立의 母音

와 같이 母音體系를 엮으려다.

(2) 二重母音

15世紀에 「애·에·와·위.....」가 文字의 構造대로 二重母音이었는데, 17世紀에 單母音으로 收約되었는지의 與否가 아직 立證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學界의 實態다. 흔히 感歎詞의 「애」가 [ai]이었을 것으로 보고 二重母音時代의 立證으로 내세우는데, 一理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滿足할 수는 없다. 그러면 다음에 이 「애」를 中心으로 考察의 範圍를 넓히려 한다.

1. 感歎詞의 「애」:

- 애 이모미여<禪家55>
- 애 큰 兄이로피야<暖 大哥 老 上 15>
- 애 진실로 ㅁ장 영노슬 갑다<咳直箇好標致 朴 上 14>
- 애 아히들히 도토히 지저귀여<全17>
- 애 네 너모 細詳ㅅ다<全 30>
- 애 貴人을 보기 어렵다<全 34>
- 애 내 일즙 아디 못홀샤<全 34>
- 애 다 아논고나<全 37>
- 애 내 진실로 일즙 아디 못ㅅ엿더니<全59>

여기서 感歎詞가 [ai]의 Hiatus로 發音하였을 것이라 보아 그 /애/가 二重母音이라고 할 수 있다. 現代語에서는 「아이」와 「애」二種이 使用되고 있어, 「애 갈대로 가라」도 可能하긴 하다. 그러나 이 /애/를 二重母音으로 보아 둘이 同을 듯하다. 禪家龜鑑에서 朴通事諺解까지 /애/가

使用되었으니 그 間의 單母音으로의 收約은 생각하지 않으려다.

2. 다음에 「애·에·외……」가 다음에 母音을 後行시킬 경우, 그 後行母音이 「이 야 여 요 유……」인 때에 일어나는 表記法의 過誤에서 보기로 한다.

쿠야(採胎產 16 <리야) 노야(腹痘瘡 上 17 <너야 <노의야)

머야 니려나(貫起痘瘡 上 30 <메야)

더여썸라(燃爛 坤烈二 14 <메엇더타)

도적항야 갈 따예(朴 上 32 <때예)

딴이 달혀, 띠이 달혀(辟瘟 4)

이것이 過誤의 表記音은 아래의 例文과 比較하면 分明해진다.

풀불휘를 리여 먹고(東新乾烈 51, 「彌妻啖草」條)

너여 심심이 나(朴 下 36)

고름 소사 땀 제(痘瘡 上 32)

늑치 다 메니라(東新季二 7)

그 때예(全孝-34)

여기서 說明을 붙일 必要도 없지만, 「노야」는 [no-ia]이고 「너야」는 [noi-ia]입에서 noi-ia>(noi-ia)>no-ia와 같이 母音의 衝突 또는 連結에서 音節分斷의 境界가 잘못 잡힌데 지나지 않는다. 이들 例야말로 /리/ /외/ /에/가 文字構造 그대로의 二重母音인 立證이 된다.

3. 二音節語이든 「가히(大)」가 이 時代에 와서 「개」로 音節이 줄었다.

수개(雄犬 胎產 5) 개고기(全14) 개 꼭리(黃狗蠅 痘瘡 上 28) 개논 澱草호 恩이 있고(朴 上 39)

개 티는 종(狗奴子 譯語 上 31) 개 티는 늑(槍狗의 全 66)

그러나 「가히 >개」는 이미 翻譯小學에서 나타난다.

그 개삿기를 머구덕(九110)

이 「개」가 [ke]나, [kai]냐에 判斷은 極히 어려운 것이나 二重母音 [kai]로 보아야 함은 같은 譯語類解에서 「개」와 아울러,

가희 뵈(狗娘의 上 31)

가 나타남에서 「가히(+所有格)+뵈」는 「가희뵈」로 나타난다는 15世紀式 複合語의 造語公式에서 理解가 된다. 이 「가희뵈」에서 앞의 一群의 「개」는 二重母音으로 보아야 한다.

4. 15世紀의 「득뵈(爲, 化)>득의」가 16世紀初에 들어서 「득의>되」로 發達된 것은 여기 舉論할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되다」의 「되」의 母音 /외/가 文字의 構造대로의 二重母音이 17世紀까지 持續되었는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우선 「되다」로 나타난 例를 例示하기로 한다. 家禮諺解에서 몇 例 들어 보자.

뻘곰 규례되여(-14) 네 幅이 되여(-38) 大宗이 祖一 되니(-15) 寔녕되이(-42) 病되이

너기샤<-40> 病되이 너기논더라<序 2>……

그런데 다음과 같은 表記의 混亂이 나타난다.

몬져 도야<先就 胎産 8> 즈름이 도엿느 니<朴 上 31> 죽게 도여<東新 乾 孝三 75> 망냥도이
<妄 胎産 37> 일편도이<소 11>

여기서 「되나」가 「도야」로 表記됨은 toi-ia>(to-ia)>to-ia의 音節境界의 分段 잘못이요, 「되이」가 「도이」로 된 것도 다 같이 toi-i>(to-ii)>to-i의 音節境界를 잘못 잡은 까닭이다. 그러고 보면 /되/의 /되/도 文字構造대로의 二重母音임이 分明하다.

5. 家禮諺解에서 一連의 다음과 같은 表記例가 있다. 여기 東國新續三綱行實圖의 例도 넣어 본다,

세고<-8> 세니<-8> 세디<-9> 세오고<-8> 세오면<-7> 세오더니 세오디<-8> 셔일 저기
라<東新 忠-8>

이 「셔일 저기라」는 곧 「셀 저기라」로 써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셔일」=셀」의 發音內容이 니 「세=셔일」에서 /에/가 /어이/와 同價라는 立證이 된다.

6. 「썸 도약<痘瘡 上 15>」의 「썸도약」의 「도약」이 問題다. 訓蒙字會에선 「썸되야기< 中 33>」으로 있고 같은 筆者의 四聖通解에서는 「썸도야기<熟生水瘡 上 17>」로 나온다. 萬一「썸되야기」가 古形이고 「썸도약」類가 Hiatus에서 音節境界를 잘못 잡아 「썸도약」이 된 것이라면, 이것도 /되/의 /의/가 文字構造대로의 二重母音임을 말함이라고 하겠다. 逆으로 「썸도야기」가 原形이고 「썸 되야기」가 그 뒤의 發達形이라면 이것으로 17世紀의 /의/가 文字構造대로 二重母音이란 立證으로 내세울 수는 없으나, 前者의 解釋으로 二重母音의 立證으로 내세우고 싶다.

以上으로 結論한다면 17世紀에서 「애·에·의……」의 母音이 文字構造 그대로의 二重母音이었고 아직 單母音으로 收約되지 않은 時代라고 斷定한다.

7. 母音의 同作作用과 唇音化의 發達:

이 時代의 母音의 發達로는 母音同化作用인데, 이미 16世紀에 나타난 것이 17世紀에 들어와서 一部는 固定化되고, 一部는 古形으로 還元된 터이다. 그러면 다음에 例示해 보기로 한다.

그제 보야호로 칩더니<東新乾孝 2 「姜庶鑿米」條>

죽도록 하니<소 孝 10 「玉良白棘」>

효성으로 그러타 하니라<소 上>

새로록 아나셔 울고<徹夜 全 12 「今之撲虎」條>

모미 묻도록 게울리 아니 하더라<소 29 「鄭門世孝」條>

나히 여드니 남도록<소 23 「淑孫立祠」條>

효성이 늙도록<소 33 「繼周誠孝」條>

그러나 古形이라고 할,

시절것 이발득록<소 30 「自革盡孝」條>

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것은 周知의 事實과도 같이 「-으로, -으로>-으로>」, 「-득록>-도록」의 逆行的 同化作用임은 勿論인데, 17世紀는 어느 方向으로 固定된 것인가 重要한 時期라고 하겠다. 諺解에서도,

世에傳훈本이모로써<-7> 可티 아니타 ㅎ시모로써<-10> 아디 ㄹㅎ모로써<-13> ㄹ조온데<-13>

위의 例는 「-으로써>」 「-으로」의 發達이 드러난 것인데, 特히 謙讓의 「ㄹ조온 데」 「ㄹ조온데」로 逆行同化로 /으/나 /오/가 /오/로 變貌되고 말았다. 胎産集要에서도

원녀오로<左 10> ㄹㅎ여시모로<11> ㄹ러 두루모로<36>

17世紀에서 後半으로 접어들면 이러한 同化作用의 例는 줄어들어 「-도록」만은 固定되었지만 「-으로」는 古形으로 復元되고 만다. 그렇다고 誤解하지 말 것은 17世紀의 文獻에서 決코 「-으로」가 優勢한 것은 아니고, 「-으로, -으로」와 「-으로」가 變形인양 共存하고 있는 터이다.

8. 母音의 唇音化現象은 語幹+오(우)+티」의 /티/가 /되/로, 即 /티/ > /외/의 唇音化의 事實인데, 이것은 이미 16世紀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나, 이 時代에 와서는 몇 개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거의 固定된 것이다. 家禮諺解에서 보면,

수를 브오되<注酒 -26> ㅎ여시되<소 8> 음티 마로되<소 34> 先生이 ㄴ오시되<소 17> 그른 줄을 아득시되<소 43>

여기서 「마로되」의 「로」나, 「ㄴ오시되」의 「오」는 아직 「語幹+오(우)+티」의 「오」에 이끌린 殘滓의 意識의 所致라고 보지만, 이미 「-오티>-되」로의 固定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保守의인 表記法은 아직껏 一掃되지 못하였으니

各 ㅎ 치 ㅅ을 호되<-45>

ㄹ조오티<-30> ㄴ오티<-30>

가 그것이다. 이같은 例를 17世紀 全般의 文獻에서 추려 보기로 한다.

그들 올프되<東新 乾 孝「患伯捕虎」條>

너브되<乞 坤烈二12> ㄴㅅ오되<服 全 列=13> 마로되<全 乾 孝 42, 43> ㅎ여디되<散 全 孝三 39> 먹그되<胎産 12> ㄴㅅ물이 나되<全 26> ㄴㅅ되<該 老上 11> ㄴ로되<全 25> 사되<買全 19> 나시되<朴 上 13> 주되<全 12> 호되<全 15> 먹이되<全 21> 利錢을 ㄹㅅ고 ㄹㅅ이되<全 31> ㄹㅅ기되<梳 全30> ㄹㅅ ㄹㅅ되<快走 全 55>

그러나 保守의인 古形의 例도 並行되고 있음은 家禮諺解의 경우와 같다.

ㄴㅅ로 마로되<東新 坤 烈四 74>

올고 마로되<全 74> ㄴㅅ러 ㄴㅅ오되<全 坤 忠-6>

슬오되<訴 坤 烈二 13>

모미 풀룰 마로되<痘瘡上 5>

즈늑즈늑호되<老上 11> 물 도습호되<朴上 24> 민돌고져 호되<소上 16> 널오되<소上 39>

여기서 보면 「마로되(물오되)」, 「호되」, 「술오되」에서 保守的인 /되/가 그대로 表記되고 있다. 그러나 「호되」에서도

送納호되<朴上 54> 도호되<소上 55> 툼칼 호나홀 호되<朴上 15> 룡(弄)호되<朴上 37>

이 같이 「호되」의 表記가 「호되」, 「호되」의 사이에서 그나마 混亂形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이것은 相當히 後期까지 持續되고, 「마로되」는 오늘날까지 維持되어 온 터이다.

9. 其外 母音變化의 特異例

17世紀의 母音의 變化는 그다지 特記할 것은 없다. 「불(火) 물(水) 풀(草) 푸르다(靑)」가 唇音化하여 「불 물 풀 푸르다」로 發達하였는지가 疑問이다. 그런데, 新傳煮硝方에서 誤刻인지는 問題지만 다음과 같은 一連의 語彙를 發見하게 된다.

또 물 밧기로부터<6>

온갓풀이<百卉 15>

독시웁사지 부어<註 5>

꽃남그로<雜紫 15>

풀 비며 술 버히기<刈草與斫松 15>

에서 唇音化가 보이는데, 그렇다면 17世紀末에 「唇音+/오/+齒音」에서 /오/ > /우/의 發達이 이미 시작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그 外의 文獻에는 이것이 잘 나타나 있지 않다.

母音의 變化에서 特記할 것은 「프다(發花)」인데, 15世紀에는 「꽃 풀 저귀(釋十 25)」 「꽃 뜬 듯호니<소 25>」의 「프다」로 表記되었고, 初刊本 朴通事에서는 「고지 뛰여신 저기어든(朴初刊 上 7)」이 17世紀에 들어와서는

꽃 피고 여름 여는 거시며<朴上 36>

고즈로 히여 피게 호몬<杜十 7>

과 같이 나타나서 恰似히 「프다>뛰다>피다」의 過程을 거친 發達과 같이 보인다. 아마도 여기에는 15世紀의 「비늘과 터럭마다 불와 너와 뛰며(月七 35)」, 「불핀 火爐에(능 七 18)」의 「뛰다」와 混同된 發達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意味에서 「開花」와 「發火」에 어떠한 關係도 없지만, 오늘날 同音語로 된 事實과 아울러 생각한다면, 「프다>피다」까지의 發達은 音韻論이 아닌 바 造語論의 語幹形成에서 可能할 것이지만, 「프다>뛰다」는 있을 수 없는 公式이다. 아마도 「發火」의 「뛰다」와의 相關된 發達이 아닌가 여겨진다. 「피다」外에 「發火」의 「뛰다」가 混同되므로써 「뛰다」가 「開花」로 通用된 것일 듯하다. 그리하여 뒤에는 「開花」나 「發花」가 同音語로 形成되어 發達된 느낌이 짙다.

여기 賞春曲의 「뛰다」는 그 記錄이 15世紀의 것인지는 疑問인데, 樂章歌詞의 「그 고지 三同

이 뛰거시아」나 古時調에서 散見되는 「뛰다」가 相當한 勢力을 가졌음을 보면 16世紀는 「피다」와 「뛰다」의 變形의 時代이었고 17世紀는 「發火」나 「開火」가 同音義 「피다」의 形成時代 같기도 하다.

10. 以上으로 17世紀의 母音論을 整理한다면 다음과 같이 된다.

(1) 17世紀는 母音體系가 6母音制의 /아/~/어/, /오/~/우/의 相關性的對立과 /으/, /이/의 非相關性的對立의 母音으로 나눌 수 있는 體系라고 하겠다.

(2) /으/音은 17世紀에는 語頭에서도 消失된 時代이고, 民衆의 音韻觀念으로는 漠然하나마 /으/가 /아/와 實際로 區別될 수 없어도 單位라는 意識을 지니고 있었을 것으로 본다.

(3) 「애·에·외·위……」는 15世紀와 같이 文字의 構造대로의 二重母音이었다고 본다.

(4) 이 時代의 母音의 發達로 特記할 것은 唇音化現象인데, 16世紀에 시작된 「語幹+오(우)+터」의 /터/가 /되/로, 即 /이/가 /외/로 圓唇化가 固定되었고, 17世紀末에는 「唇音+(으)+齒音」에서 그 /으/가 /우/로 圓唇化하기 시작한 것인데, 이것이 가장 이 時代의 母音의 發達로는 特記한 事實이라고 하겠다.

(5) 圓唇化와 아울러 母音의 同化作用으로 이미 16世紀에 시작된 「-으(으)로>-오로」, 「-드록>-도록」이 17世紀에 들어와서 「-오로」는 점차 「-으로」로 還元되고, 「-도록」은 그대로 固定된 時代라고 하겠다.

(6) /어/~/외/의 混同이 第2母節에서 일어난다. 「하더니~하드니」의 /더/~/드/의 動搖 또는 混亂은 이 두 母音, /어/~/외/가 母音位置에서 近似함을 뜻한 것이라고 하겠다.

(7) 特記할 發達例로서는 「히다(白)」가 「회다」로 固定되었고, 「프다(開花)」가 「피다」로 持續된 時代다. /으/音에서 「흙(土)>혹」, 「스매(袖)>소매」, 「말씀(言)>말씀」의 發達이 보이거나, 「말씀」은 固定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還元된다.

全體로서 母音의 特徵을 論한다면, 17世紀에는 /으/音의 消失과 그 末期에 가서 唇音과 齒音 사이에 介在된 /으/가 /위/로 唇音化하는 두 事實이 特記될 만하고, 그 후의 「호터>호되, 하되」나 語尾의 「-드록>도록」, 「히다>회다」 등은 枝葉의이고, 傾向의發達이 될 수는 없다고 하겠다.

2. 子 音 論

17世紀의 子音論으로서, 16世紀에 比하여 特記할 變化는 나타나지 않으나, 近世國語의 形成에의 漸近的인 推移가 나타나고 있다.

1. △音의 表記

/△/音의 消失은 이미 16世紀 後半期에 完了된 것으로 보는데, 17世紀에 들어서도 文獻에 따

라 特異한 語彙에는 使用되고 있다. 이것은 오직 表記法의 保守性에 依함이어서 本稿에서는 그리 重視할 것이 못된다. 여기 禪家龜鑑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一定한 語彙나, 特異한 語尾나 接尾辭의 경우에 限하여 使用되니, 音韻으로서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音의 位置에 /ㅅ/音이 나타나, 恰似히 /△/와 /ㅅ/의 交替같이 보이나, 이는 方言의 混入이요, 交替일 수도 없는 것이다.

(a) ㅅ슴<3, 14, 30> ㅅ슴돈<9, 30> ㅅ슴매<4, 43> ㅅ슴으로<13> ㅅ슴물<23, 40, 43>

처엄<63> 처엄<13> 처엄<11>

(b) ㅎ슴와도<1> ㅎ슴왕다<1> ㅎ슴은덕<2> ㅅ슴오리로다<3> ㅅ슴고<2> 두르리슴와도<3> 보슴전대<5>

(c) 여희여사<1> 헤티사<15> 니룩샤사<12> 나타사<願 10> 마자사<具 14> 相續하야사<12, 13> 오를사<今日 33>

以上은 「ㅅ슴 처엄」 같은 特異한 語彙의 경우이나, 그 「처엄」도 「처엄」과 不一致를 보이고, (b)에서는 謙讓의 接尾辭 /슴/의 경우요, (c)에서는 強調의 particle /사/에 限한다. 그러나, 같은 語彙도 다음과 같이 /△/音의 使用與否로 갈리게 된다.

니술더어다<綿綿 17> 니선다<21> 니수물<50>

나아가<進 16> 나사가느니논<38> 나스며<59>

여기서 一見 /△/와 /ㅅ/의 交替같거나, /△/ > /ㅎ/ > /ㅅ/과 같은 公式로 解釋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例示된 語彙에서 方言의 混入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예는 더 많은 것이다.

(d) 아사<契 2> 아스며<2> 아소미라<29>

브스지다<注 4> 브술<53> 그스기<51> 그스며 그슴<59> 브스름<直 55> 여시<野干 gen, 36>

머리 조스믄로<稽首 59> 더 마새 건너리라 ㅎ시다<即度彼岸 43>

스시<間 21> ~스이<42>

그리고 보면 「ㅅ슴(心)」은 그 使用의 頻도가 높음에서 이러한 表記法이 持續될 수 있다고 하겠으며, 謙讓法의 接尾辭 /슴/도, 強調의 particle /사/도 使用頻度에서 表記法上 그대로 維持될 可能性이 짙다고 하겠다. 이것은 오직 慣習의 強度에서 表記된이요 實際의 言語와는 別個의 것이다. 다음에 東國新續三綱行實圖를 보면 오직 「ㅅ슴(心)」以下 頻도가 높은 語彙에 限하여 使用되었다.

ㅅ슴<烈-2> ㅅ슴<村考六 22> 아슴<考七 21> ㅅ슴고<考七 19>

그러나 여기도 다음과 같은 /△/가 아닌 表記도 보이는데, 이것이 차라리 一般的인 表記다.

두 아을 두리고<興二弟 乾孝三 57> 브억<厨烈二 11> 마을날<四十日 全 11>

그러나 家禮諺解 以下の 文獻에서는 /△/音의 表記가 完全히 자취를 감추었다. 以上으로서 17世紀에는 表記法으로는 特異한 語彙나 語尾 또는 接尾辭에서 /△/音이 使用되었으나, 其實 이

17世紀는 /△/음이 存在하지 않는 時代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ㄹ/의 音韻觀念 :

語頭에서 /ㄹ/음이 어찌 意識되었는가를 보기로 한다.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 보면 다음과 같이 /리/가 /니/로, /랴/가 /냐/로, /려/녀 /로, /류/가 /뉴/로 表記되고 있다.

李氏 : 니시<烈 二 71> 林應龍 : 님응농<烈 三 9> 良女道令 : 냥녀도금<烈 二 73> 柳氏 : 뉴시<烈 二 56> 領議政 : 녕의정<烈 三 58>

여기서 17世紀는 語頭的 「나, 너, 노, 뉴, 니」가 發音되었을 可能性이 짙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아울러 語頭的 「랴·려·료·류·리」는 發音이 不可能하여 「나·너·노·뉴·니」로 發音되었을 것이 짐작된다. 이와 아울러 「랴·려·료·루」도 語頭에서 「나·너·노·뉴」로 發音되었을 것이니, 여기서 다음과 같은 例가 나온다.

그럴시 러비 드로물 즐기는 사룩문<禪家 59>~그 너빅<家禮 一 38>

이 「러비」는 너비<廣>의 뜻인데, 17世紀는 語頭에서 「랴·려·료·류·리」가 「나·너·노·뉴·니」로 發音되었을 것이 오늘날과 다르다고 본다.

이와 아울러 語中에서도 /ㄹ/과 /ㄴ/간의 混同을 이끈다.

오롤사<오늘사 禪 33>

이것은 語中에서 /ㄹ/과 /ㄴ/의 識別의 混亂으로 보며, [r]과 [l]의 識別도 困難한 듯이 主題格 「-은」이 올 것에

一物문<禪 上 1> 一說문<소 4>

라고 使用된 當時의 /ㄹ/과 /ㄴ/의 音韻觀念의 不正確을 말함이다. 家禮諺解에서도 같은 誤記가 나타나는데,

甚히 불거롤<불거놀 41> 서룩 년屬티 아닐 거시어롤<거시어놀 42> 굴 잘 스느니놀<스느니롤 33> 일노써<以是 30>

다시 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서 보면,

고구녀 사룸이<忠 4 <고구려> 어미놀<孝 三 39> 빙소놀<빙소롤 孝 三 39> 죽거롤<孝 三 46. 53 烈 二 14> 니어놀<鯉<니어롤 孝 三 57> 구스놀<球<구슬을 忠 一 9> 프놀 븐들고<挽草 烈 四 19>

이렇게 되면 /-놀/~/-롤/간의 混亂이 決코 偶然한 것은 아닌, 音韻意識은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15世紀에서 傳來된 다음과 같은 表記法은 維持되고 있다.

禪물리오<禪旨 禪 上 3> 세물리<三要 上 14> 물애<沙 35> 갓잘애<革囊 55, 가죽 자루에> 열 이느니라<「開」의 被動 家禮 36> 밭꼴롤<米粉 胎產 7, 39, 73> 더 흰 꼴롤<那白麵 朴中 6> 홀리라도<一日이라도 捷 三 21>.

그러나 이것이 表記法의 差異대로 發音되었는지 疑心이 없을 수 없다. 그것은 「겨레(族)」~「결레」의 表記에서

(α) 식결례예<媿, 族斷 家禮五 4>

(β) 겨례 권당으로서<警民 22> 다례 겨례에 도라 보낼 거시라<東新烈一 2>

위와 같이 表記法의 不一致에서 17世紀는 /ㄷ/라 /ㄴ/間에, 또는 [r] [l] [ll]間의 意識이 至極 分明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여기 끝으로 初刊本 杜詩諺解 卷15와 重刊本을 比較하면 다음과 같은 差異가 난다.

돌근수물<初刊 40>>돌근술 물<全重刊> 수물 노흔버<置酒 初刊 45>>술물 노흔며 <全重刊>

프른 수물<初刊 56>>프른 술물

여기서 「수물」 「술물」로 發音되었을 리 없음은 朴通事諺解 上 2의 「저젯 술을 가져오면」과 比較하면 알 일이다.

3. 激音化와 硬音化:

17世紀에 aspirate化한 語彙는 그다지 두렵하지 않으나, 우선 「고(鼻)코」의 發達을 찾아 보기로 한다.

고 춤 받거나흔면<禪下 55> 고 춤 받디 말며<소上> 물근 고 마뜻야<如淸舉 胎產 8> 고흥
핑근 거시오<家禮 圖 5> 혼 머리에 고흥 두어<소 11> 콧물과 눈물<痘瘡 上 3> 폐장은 콧물
이오<소 上 2>

여기서 表記法대로 하면 「고(鼻)」는 17世紀에 「코」로 aspirate化한 것이 된다. 「칼(刀)」에 대하여 例示하면 다음과 같다.

칼홀 범흔면<犯刀者 胎產 14> 칼로 혼 베흔 마뜻니<禪下 49> 칼 마는 돌 마뜻니<소 下 54>
칼흔로 합절의 풀홀 티고<東新忠 2 「丕寧突陣」條> 칼놀흔<孝三 39> 칼 잘 민든<朴 上 15> 칼
즈뜻<刀把 譯語 下 17>

여기서 胎產集安의 「칼」이 事實이라면, 「칼>칼」의 aspirate化로 17世紀의 發達이 되는데, 이 胎產集要의 例만으론 그와 같은 斷定은 일다고 하겠다.

또 「닷(故, 理由)」가 이 時代에 aspirate가 됨도 興味있는 事實이다. 本來 「닷」은 15世紀에 「世尊」 다시 아니시다스이다 法二5의 「닷」인 것이다. 이것이 17世紀에도 「닷」으로 나온다.

엇던 다스로 우리들히<禪下 43>

그러나 痘瘡集要 卷上에서는 「탈」으로 나온다.

어둔 탐시니<上 31>

그러므로 17世紀의 aspirate化의 例는 「고>코(鼻)」, 「칼>칼(刀)」, 「닷>탈(故 理由)」의 세 語彙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 中에서도 「칼>칼」은 16世紀末에서 일어났을 可能性도 있다.

硬音化의 適例는 17世紀國語에서는 찾기 어렵다. 그런데 胎產集要의 한 例가 그것인데,

원츄리 쏘출 츄고<萱草花 佩之 12>~복송와 꽃넙 마뜻니<8>

그러나 이 胎產集要是 「中間」을 그다지 使用하지 않으니 「쏘출」로 본다.

빅소리<腹內 10> 수돗귀<12> 나귀고기<14> 밀마루<6> 복숭와 꽃님<8>

따라서 「꽃(花)」은 이 時代에 「꽃」으로 硬音化했다고 하겠다. 다음에 「갓다 갓고(刻切)의 例를 보자.

머리 갓고<朴 上 50> 머리 삭고<全 51>

여기서 「갓고(刻切)」가 「삭고」로 硬音化된 것이 밝혀진다. 「갓고(切) 갓다」의 硬音化도 거의 同時에 이루어졌으리라고 믿는다. 오직 그 實證을 얻기가 困難하나, 이러한 發達過程이라고 느껴지는 다음 例가 있다.

齊는 적거 흙이니<家禮 44>

그러나, 17世紀의 이런 例는 너무도 적다고 하겠다.

4. 口蓋音化作用:

17世紀는 口蓋音化作用이 表記法 뒤에서 相當히 進行된 것으로 본다. 우선 初刊本과 重刊本 杜詩諺解 卷十五를 比較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비치 도토다<初刊 18>>……조 토다<重刊>

靑溪에 잘디로다<初刊 26>>……잘지로다<重刊>

비스기 부들 무터<初刊 12>>……부들무쳐<重刊>

실마티 누눇다<初刊 27>>실조치

그런가 하면 逆으로 口蓋音化 以前의 古形으로 還元하려는 表記도 보인다.

나뭇가^지예<初刊 4>>나뭇가^디예<重刊>>술진 물<全 4>>술딘 물<全 4> 고지<花 6>>고디<重刊> 프른 지^른<羽 33>>디^른<重刊>

여기서 口蓋音化作用은 날로 그 勢力을 펴가는 것이라고 하겠고, 앞의 例는 口蓋音化作用에서 벗어나려는 것이 되고 말았는데, 一種의 語源意識에서 나온 지나친 還元일 것이다.

편코 조호되<便好 燕喃 5> 부쳐<佛 勸念要錄 29> 고쳐<全 7> 기친<遺 全 7> 모진<全 7>

이 勸念要錄은 仁祖 5年<1637>年 刊이며 다시 杜詩諺解의 重刊本에는 더 많은 口蓋音化의 例가 나온다.

버지<友<번이三 53>> 저즈음의< 48> 도치 못호물<三 50> 히진나조히<日暮 四 11>……以下略
이렇게 보면 17世紀는 口蓋音化가 가장 活潑했던 時代라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學界에서 이미 論難한 바 있고, 特히 安 秉禧教授의 開拓의 功이 큼을 謝하여 둔다.

5. 語幹末音의 子音群 /-lp/型:

17世紀에는 몇 개 語彙에서 語幹末音이 /lp/인 것에서 一方의 脫落이 일어난다. 그 中 「앞(前南)」을 들고 따지기로 한다.

앞의 나아가<東新 坤 忠-14> 앞뒤 通하야<家禮 圖 2> 앞쪽로써 南을 삼고<家禮-11> 앞피<禪 59>

이것이 一般이나, 여기 新形이 나타난다.

子孫이 影堂 아찌……〈家禮—29〉 압뽀홀 닛나디아니케 흠이어눌〈소42〉아찌 가〈東新烈5
「金氏模虎」條〉

여기서 「압뽀」에서 /ㄹ/의 脫落으로 「앗」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음에 「痛·患」의 語彙를 調査하기로 하자.

(a) 머리 알뽀며〈辟瘟1〉 알뽀디 아니면〈胎產21〉 털이 심히 아니 알뽀면〈소21〉

(b) 허리 아파 디고져 하니를〈소19〉 마장 아뽀고〈소20〉 아뽀디〈소21〉아뽀돌 춤노라소21〉

(c) 눈망울이 알함며〈辟1〉 머리 알함며〈소2〉 비알기 혹 알함며 혹 그치며 혹 심히 알
뽀디 아니면〈소21〉 비알키 허리와 등울 등기면〈소20〉

여기서 「알뽀며」는 「痛」의 形容詞일 것이고, 「알함며」는 「患」의 動詞일 것이다. 그러나, 그
간의 區別이 意味論上 分明하지 않다. 「눈망울이 알함며」는 「알함며」가 動詞로서도 矛盾이 있
다. 그러나, 여기서 그것을 따질 생각은 없는데, 오직 「압뽀며」>「아뽀며」만의 發達을 취하는 바
이다. 卽 /alp-/>/ap-/의 語幹末音의 子音群 /lp/에서 /l/의 脫落만을 취하여 둔다. 이와 同類
의 發達로서

或有 사록몬 비 고평디 아너서 머그며〈禪下53〉

이것은 本是 「곱뽀며」類의 發達이다. /kolp-/에서 /l/의 脫落으로 語幹이 /kop-/가 되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語幹末音 /-lp/가 /-p/로 發達한 것도 이 17世紀의 事實이라고 하겠다.

6. 語頭子音群 /ɬa-/ , /ɬe-/

17世紀의 모든 文獻에서 /ɬa-/ , /ɬe-/ 등의 語頭子音群은 빠짐없이 使用되고 있다. 15世紀와
比較하여 差異가 생겼는데 다음과 같은 것이다.

時：때(<때)意：/뜰/이 뒤에 가서 /똥/으로 變하다.

禪家龜鑑에서는,

뜨디〈2〉 떠러사〈拂12〉 뜰〈47〉 떠여〈蒸35〉 떠러듀미〈62〉 뽀〈爆15〉 뽀로〈別59〉 뜨벼〈4〉

뜨논〈16〉 푸든〈7〉 뜰홀 단숨으로〈13〉 뜨룩시며〈掃3〉 뜨며〈用3,17〉 띄우물〈用49〉 뜰〈用49〉

뽀〈以12〉 띄러〈包9,25〉 뜰의미〈59〉 뽀〈爆뽀하면15〉 뜰〈包53〉

여기서도 15世紀의 用例보다 變貌되 것도 있지만 더 따지지 않기로 한다. 家禮諺解에서도,

뜰〈織27,44〉 뜨문〈用44〉 뜨라〈42〉 뜰〈用14〉 뜨디〈44〉 뜨든〈42〉 뜰이〈7〉 뜨로〈27〉 때〈時
31〉 뛰〈茅24〉 떠서〈兼45〉……

그러나 新傳煮確方에서도,

띄고〈曝1〉 뜨거나〈用1〉 뜨디〈用3〉 뜰고〈穿5〉 띄고〈躍6〉 뜰리논〈振9〉 띄호되〈以爲15〉
뜰〈意17〉……以下略

여기서 「뜰 시슨 뜨물로……18」가 나오니 「뜰」과 「뜨」사이 實際로 發音의 差異가 있었던

지 궁금해진다. 17世紀末까지 이러한 語頭子音群이 그대로 發音되었는지 疑問이며, 아마도 保守의인 表記法에 의해서 維持되어 온 것이 아닌가도 여겨진다.

7. 以上の 考察을 整理한다면 17世紀의 子音體系는 大體로 다음과 같을 것이라고 하겠다.

/ㅂ/ /ㅃ/ /ㅍ(ㅍ)/ /ㅁ/
 /ㄷ/ /ㄸ/ /ㅌ(ㄸ)/ /ㄴ/ /ㄹ/
 /ㄱ/ /ㅋ/
 /ㅈ/ /ㅊ/ /ㅍ/
 /ㄱ/ /ㅋ/ /ㅌ(ㄸ)/ /ㅇ/
 /ㅎ/

이것은 그대로 現代語의 내려온 것이며 16世紀에 比하여 /ㅌ/音이 줄었을 따름이라고 하겠다. 勿論 앞의 體系는 各 文獻의 用字에서 推理한 것이어서 處格에서 「예」의 使用이 보이나, 그것이 表記法上的 慣習인양 보였고, 「야 여 요…」도 [j]으로 換算하지 않았음도 活用母音에서 語幹과의 關係나, Hiatus에서 보다 文字上에서 計算한 것이니만치, 正確한 單位의 設定이 아님을 미리 一言하여 둔다.

結 語

近世國語의 時代境界를 16—17世紀에 世紀를 境界에 잡는 것은 便宜上的 方法이라고 본다. 一部에서 主張하듯이 壬辰倭亂을 境界로 함도 時間的으로 前者와 大差없는 것이지만, 戰亂을 言語區分에 利用함은 보다 非合理的인 것이 아니라, 要는 그래도 言語의 發達傾向이나 言語의 全般의 狀態의 比較에서 時代區分이 可能한 것인데, 아직 우리 學界가 이에 答할 16—17世紀 言語의 研究에 치밀한 結果가 나타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大體로 믿어온 것은 17世紀 國語가 聲調의 潛跡, △字의 一掃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 또한 文獻의 保守의인, 또는 混亂된 表記에 依함이지, 그리 信憑性이 있는 態度는 아니려니 한다. 聲調나 △字使用의 問題도 16世紀 後半期부터의 問題이지, 그것이 17世紀에서 問題될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그러나, 現在로서 近世國語를 17世紀에다가 考察의 出發點을 삼는 것은 妥當하다느니 보다, 이 以上の 方法은 現在로서 模索하기 어렵다고 본다.

以上 17世紀란 1世紀의 音韻史의 考察에서 그리 큰 時代的特徵을 찾기란 어려운 것인데, 여기 結論삼아 이를 總整理하려 한다.

17世紀의 前半期에서는 母音에서 /ㄹ/音의 消失이 나타났는데, 그것도 여지껏 維持되어온 語頭에서의 마지막 /ㄹ/音의 音韻意識이 動搖되면서 「(高土) 스매」가 「흙, 소매」로의 發達에서 그

立證을 들어낸 것이고, 「히다(白)」가 이에 따라 「피다」로 變化함으로써 이 推定을 強化한 셈이다. 이 세 語彙의 變化는 /ㄹ/音消失의 時期確定에는 重要な 立證이 된다. 子音에 있어서는 /△/音이 16世紀 後半에서의 消失이 完全히 表記法에서도 一掃된 셈이며, 口蓋音化作用은 進行되었을 것이나 文獻에는 그다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16世紀에 進行된 「호터>호되」類의 母音의 唇音化도 거의 固定된 時代이기도 하다.

17世紀 後半기에 들어서 母音으로는 「애 에 의……」의 二重母音이 單母音으로 收約되는 立證은 얻을 수 없고, 그대로의 二重母音으로서 持續된다고 보나, 그 末期에 가서 「唇音+/으/+齒音」의 「불(火) 브터 풀(草)」類의 語彙의 一部가 「부터 풀」로 나타나기 시작할도 두드러진 特徵이다. 子音으로선 이렇다고 할 特徵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17世紀를 通하여 aspirate化가 「고(鼻) 갈(刀) 닛(故 理由)」에서 나타나나, 그 「갈>칼」은 16世紀부터의 느낌이 짙으며, 硬音化의 例로는 「갓고>깅고(刻)」가 後半기에 나타난 것이 特記할 것이라고 하겠다. 이 時代의 音韻觀念으로 /ㄹ/~/ㄴ/間의 識別이 意外로 不分明한 것이 드러났다. 그런데 15世紀보다도 一層 甚한 것은 表記法의 混亂이 15世紀와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甚했고, 그래도 17世紀 後半기가 제 나름으로 表記法의 大體의 傾向이 形成됨에서 多少의 是正된 느낌이 짙다. 母音調和는 이미 固定된 語幹을 除外하고는 語幹과 格, 語幹과 語尾의 連結에서는 이미 그 勢力이 極도로 去勢된 것을 보여 준다.

17世紀國語에서 興味있는 것은 音韻史의 考察이 아니라, 그보다 形態論과 造語論일 것이며, 새로운 語彙의 登場등 多彩로운 터이다. 形態論의 考察은 아마도 音韻論의 考察과 比較가 되지 않을 정도로 量的인 差異를 가져올 것이 뚜렷하다. 本稿는 制限된 紙面을 考慮하여 音韻史의 考察을 擇하였으며, 그것도 特徵적인 項目을 項目爲主로 考察한 셈인데, 統計的考察이 더욱 價値를 가질 것이지만, 17世紀 以後의 研究는 後日의 機會에 發表키로 하고, 本稿에서는 이 程度로 끝막기로 한다. (1971. 10. 12)

A Study of 17th Century Korean from Phonological Point of View

by Sung-nyong Lee

Historians of the Korean language consider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o be the transitional period from Middle Korean to Modern Korean. Encouraged by the discovery of the related literature after the liberation scholars of the Korean language have devoted their time and energy to the study of 15th century Korean. But surprisingly, few researches have been carried out as to 16th and 17th century Korean. Perhaps this phenomenon might not be a surprising one if we remind ourselves that Korean script was formulated in 1444, that Buddhist *sutras* were translated by the medium of that script, and that not only those translated Buddhist *sutras* but also other books were published in the 15th century. Be what it may, there is no reason why 16th and 17th century Korean should be neglected in our study. This is exactly why I attempt to make a study of 17th century Korean from phonological point of view.

We have a lot of 17th century literature, which must be first of all examined and evaluated. Written language being conservative and writers tending to use for their books the language not of his time but of the preceding age, it is not always true to say that all the 17th century literature was recorded in 17th century Korean. It is essential for the success of my present study, therefore, that characteristics of every individual writer's written language should first be found out and then the actuality of 17th century Korean should be analyzed.

From the point of view of vocalism 15th century Korean had 7-vowel system, the opposition system, in which vowel harmony was strong. A great change was made to this system by the disappearance of the vowel /./ (a back-low vowel that has sometimes been given a phonetic symbol[ʌ]). This essay is mainly devoted to point out that the vowel /./ disappeared altogether in the actual language of the daily use in the 17th century although it was still in use for the 17th century literature.

The next thing this essay deals with is the question whether the diphthongs 'ㅐ[ai], ㅔ[ei], ㅚ[oi].....' which are all pronounced as single vowels today remained to be diphthongs in the 17th century or whether they changed into single vowels through contraction. My examination shows that they continued to be diphthongs in the 17th century.

As a matter of fact, it is a very difficult matter to judge whether a unit of letters such as *ai* and *oi* is a single vowel or a diphthong. At the end of the 17th century the intervocalic /o/

(sit could be phonetically described as [i]) is seen to begin to develop into a labial vowel /ㅘ/[u] under the phonetic condition of the 'labial + /ㅚ/+dental'. That vowel harmony lost its influence in the case of 'stem', 'case', and 'ending' is surely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17th century Korean.

As for the consonants, /△/[z] is still found in the literature at the beginning of the 17th century. I have tried to point out that it disappeared in the spoken language of that time although it was still in use in the written language due to its conservatism. I have also tried to point out that the palatalization of consonants which had been hidden under the conservatism of the written language began to reveal itself in the latter half of the 17th century. Quite a few scholars have already mentioned the palatalization of consonants of that period, but Prof. Ahn Byong-hi's (安秉禧) article is the most noteworthy. We find in the 17th century literature a great confusion between initial or intervocalic [l], [r], [n] and [r], [l], [n], but this is nothing but a characteristic of Korean. In other words, the confusion sprang from the fact that we initial [l] and [r] sounds could not be pronounced. This leads us to the conclusion that /ni/, /nia/, /nio/..... must have been pronounced in the 17th century when they occurred initially. But of course they cannot be pronounced today, and /n/ has dropped out.

Besides, I have found out that initial sounds tended to become aspirated in the case of some words and that there was a development of gemination peculiar to Korean. Mention is also made of consonants groups occurring in initial and final of stem.

I wonder whether the initial /ps-/ and /pt-/ which are found in the 17th century literature were in fact pronounced and could be pronounced, but I have made it clear when and in what process certain words dropped /l/ in their finals (of stem) /-lp/.

17th century Korean gives us more new phases in its morphology and formation of word (Wortbildungslehre) rather than in its phonology. I am sure that lexicology will also produce many new phases about 17th century Korean. But here I have to be satisfied by saying that I will wait for another chance to make public my study on Modern Korean in terms of morphology. It is urgent, I would like to add, that the history of language of Yi-dynasty which had produced a vast quantity of literature in Korean script be compiled.